

#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본 신분질서

최 경 규\*

## 〈목 차〉

- I. 머리말
- II.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연구약사
- III. 아라가야 묘제의 유형화
- IV. 수혈식석곽묘의 전개양상
- V.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본 신분질서
- VI. 맺음말

## 국문요약

가야제국에 대한 연구는 그간 김해의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 중심의 연맹체적 해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때문에 아라가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에는 4세기 중엽 이후에 대형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고, 이어서 5세기 초엽~중엽에는 대형봉토고분의 매장주체부로 수혈식석곽묘가 축조되는데, 동시기 금관가야에 비해 탁월하며, 대가야와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이다. 아라가야의 성장과 발전은 묘제의 변화과정에 나타나 있으며, 아라가야의 최전성기의 묘제인 수혈식석곽묘의 연구를 통해 당시 아라가야 발전기의 대외정세와 지배층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경향은 유물중심의 편년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묘제는 목곽묘에서 횡혈식석실묘에 이르는 통시적인 연구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논하기 위해, 앞시기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관곽의 개념을 적용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는 각각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있으며, 수혈식석곽묘의 상위위계인 I·II유형은 다시 규모, 순장형태, 부장유물의 질적 차이 등에 따라 I유형은 3개의 소유형, II유형은 2개의 소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아라가야의 5세기 대 수혈식석곽묘 I 유형에는 순장이 시행되었으며, 마갑과 철제 갑주류 등의 상당한 위세품의 부장되었다. 이는 아라가야 성장의 외적표현이 수혈식석곽묘의 축조와 동시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혈식석곽묘 I 유형의 유형분화 양상은 아라가야의 王과 그 아래에 上·下 卑 階 층의 존재와 대응되는 것으로,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파악된 지배층의 분화양상은 아라가야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 아라가야, 관곽구조, 수혈식석곽묘, 유형화, 계층분화, 신분질서, 王-上 卑 階 - 下(次) 卑 階

---

## I. 머리말

종래의 가야에 대한 연구경향은 김해의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 중심의 연구였고, 5세기 후반기의 가야제국을 연맹체적 관점에서 보고, 그 맹주는 대가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아라가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sup>1)</sup> 아라가야에 대한 연구는 함안 도항리고분군의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된 199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연구경향은 묘제의 변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라가야의 최고 전성기의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아라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중에서 성립시기를 찾아내고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고고학적 작업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대형 봉토고분이 조영된 아라가야의 최고 전성기의 묘제인 수혈식석곽묘의 분석은 당시 아라가야 사회를 파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혈식석곽묘로의 전환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앞선 시기 묘제인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세기대의 각 가야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하면서도 수혈식석곽묘라는 공통된 묘제를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주목한다면,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작업은 앞으로 각 가야권역의 고분들 간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에 대한 연구약사를 살펴본 후, 그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라가야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문헌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아라가야 지배층분화와 수혈식석곽묘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연구약사

아라가야의 고분문화에 대한 연구는 도항리·말산리고분군<sup>2)</sup>의 발굴조사가

<sup>1)</sup> 가야의 正體를 연맹체라고 정의하면서부터 사회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가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아라가야의 정체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도 가야연맹체의 시나리오로부터 발단되었다고 한다. (이성주, 『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伽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1, 2000, 76쪽.)

<sup>2)</sup> 도항리와 말산리에 걸쳐있는 두 고분군을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7월에 ‘함안 말이산고분’으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선사시대의 지식묘부터 횡구·횡혈식 묘제까지 통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사 정리는 김형곤,<sup>3)</sup> 이주현,<sup>4)</sup> 조수현<sup>5)</sup>에 의해 검토된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수혈식석곽묘를 대상으로 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조사된 말이산 34호분(<현>4호)으로 발굴조사내용은 1920년에 보고되었다.<sup>6)</sup> 말이산 34호분은 조사당시 한쪽 단벽부를 석실의 입구부로 간주하고, 단벽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잘못된 조사방법<sup>7)</sup>으로 인해, 최근까지 수혈계횡구식석실묘로 해석되어왔다.<sup>8)</sup> 하지만 이주현은 측벽에 설치된 감실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도항리<현>15호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말이산 34호분을 기존의 수혈계횡구식석실이라는 해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조적으로 모두 반지하식이며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 주축방향이 남-북향으로 일치하는 점, 감실의 존재 및 위치가 비교적 일치하고 개석 수와 규모 등이 유사한 점을 들어

로 개칭하고 사적 515호로 재지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도항리·말산리고분군을 말이산고분군으로 개칭하여 표현하여야 하지만, 그간 공표된 자료가 대부분 '도항리고분군'으로 명명되어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도항리고분군'으로 통일하여 명명하고자 한다.

3) 김형곤, 『阿羅伽耶의 形成過程 研究 : 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 『加羅文化』12,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1995, 5~69쪽.

4) 이주현, 『咸安地域 古墳文化의 調査와 成果』, 『加羅文化』12, 경남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95, 71~125쪽.

5) 조수현, 『咸安地域 古墳文化의 展開樣相』, 『東亞文化』創刊號, 2005, 43~81쪽.

6) 朝鮮總督府古蹟調査委員會,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함안 일대의 유적을 처음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상기 보고문에 대해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함안일대의 고분군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발췌하여 번역하여 재보고하였다.(창원대학교박물관, 『제5장 古墳의 構造와 出土遺物』, 『咸安阿羅伽耶의 古墳群』(I), 1992, 70~131쪽.)

7)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발굴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는 이희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시각에서 이주현은 말이산 34호분의 구조를 재검토하였다.

이희준,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韓國考古學報』24, 韓國考古學會, 1990, 49~80쪽; 이주현, 『末伊山 34號墳의 再檢討』,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403~418쪽.

8) 말이산 34호분의 경우, 석곽의 3벽면에 5개의 감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함안지역 석곽 내에 설치된 감실은 고구려 安岳2호분이나 武肅王陵의 석실 내에 있는 壁龕으로 추정되었고, 화염문투창고배를 조명용토기인 등잔으로 파악하여 석곽의 구조를 수혈계횡구식으로 추정하였다.(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IV. 考察』, 『咸安道項里古墳群』III, 2000, 146쪽.)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龜田修一, 『韓半島南部における 竪穴系横口式石室』, 『城二號墳』, 宇土市教育委員會, 1981; 홍보식, 『嶺南地域 横口式·横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嶺南考古學』12, 嶺南考古學會, 1993, 71~107쪽.

말이산 34호분을 수혈식석곽묘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성주<sup>10)</sup>는 아라가야의 경우 5세기대 지배적 친족집단 묘제의 양상과 그 기원, 및 주변지역에 영향을 준 범위 등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낙동강을 경계로 경주와 그 주변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대형묘 매장 시설의 형식이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변한다고 하였다. 결국, 낙동강 이서의 가야 주요 정치체는 대형묘의 형식으로 단독곽식 석곽묘를 소재로 하여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함안 오곡리 11호 석곽의 경우, 함안분지 안쪽의 도항리고분군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되고 김해지역의 석곽묘와 유사함으로 김해지역으로부터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함안의 석곽묘 축조기술은 외부에서의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외부에서 석곽이 도입되었더라도 함안 자체의 목곽묘 전통은 초기 석곽묘로 이어진다고 하여 아라가야의 석곽묘는 말기 목곽묘의 지역성으로부터 기원하는 독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대가야와 마찬가지로 중심고분군에서 완성되어 주변의 일정 범위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주현<sup>11)</sup>은 함안지역 묘제의 변화를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로 구분해서 검토하였다.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는 석곽의 장폭비가 4:1로 매우 세장하여, 2.8:1의 부산·김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사용된 석재와 축조방식에서도 함안지역의 기반층을 이루고 있는 적갈색계의 혈암을 얇은 판상으로 치석하여 사용하는 등 낙동강하류역의 석곽묘들과 다른 함안지역만의 특징을 강조하였다. 석곽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2종류로 구분하였는데, 1유형은 석곽의 길이가 5m 정도의 대형급의 석곽으로 구릉 사면과 지능선상에 입지한 대형봉토분 사이에 축조되었으며, 도항리<문>14·38·51호와 <창>14-1·2호가 해당된다고 보았다. 2유형은 주능선이나 지능선의 정선부에 위치하고, 석곽의 규모가 7m 이상이며 벽면에 감실이 6곳에 설치되어 있는 초대형급의 석곽묘로 구분하였다. 2유형으로는 도항리<현>4(구34호)·5·8·<문>54호가 속한다고 하였다. 2유형에 나타나는 감실의 기능에 대해서는 거대한 봉토의 무게에 대한 개석의 안전 유지와 석곽의 붕괴를 막으려는 일종의 보완시설로 보았다. 또한 2유형의 석곽 내부에는 주피장자의 머리위에 주로 서침된 순장자가 배치되었다고 하

9) 이주현, 앞의 논문, 1996, 404~411쪽.

10) 이성주, 앞의 논문, 2000, 49~90쪽.

11) 이주현, 『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각국사의 재구성(가야사학술심포지움)』, 2000, 219~285쪽 ; 『考古學資料를 통해서 본 古代의 咸安』, 『咸安博物館圖錄(특별논고)』, 咸安博物館, 2004, 188~203쪽.

었다. 이러한 대형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중엽에 이르러 지배자의 주요제로 서서히 정착한다고 보았다.

조수현<sup>12)</sup>은 함안지역에서 조사된 23기의 수혈식석곽묘를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내부구조의 변화상을 ①장축방향과 묘역의 입지조건, ②평면형태와 규모, ③축조방법, ④바닥형태, ⑤감실, ⑥유물부장양상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설정과 편년을 시도하였다. 함안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수혈식석곽묘는 말산리파괴분<경>으로, 출현 시기는 대형목곽묘의 마지막 단계인 5세기 2/4분기로 보았다. 또한 유물의 형식변화와 유구의 구조변화에 의해 수혈식석곽묘를 모두 4단계로 구분하였다. 구조변화에 따른 단계적 특징으로는 제1단계(출현기, 5세기 2/4분기)는 대형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는 묘제변화의 과도기로 설정하였다. 묘제의 전환배경에는 자체적인 발전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주요사건(400년 고구려 남정)에 의한 돌발적인 묘제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석재의 도입은 목곽묘의 바닥에 사용된 잔자갈과 보강토에 활석을 이용한 뒷채움 보강현상 등으로 볼 때, 전대 목곽묘단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의 수혈식석곽묘는 말산리파괴분<경>으로, 정형을 이룬 수혈식석곽묘가 아니라 전대 목곽묘의 강한 잔재요소가 남아 있다고 보았다. 제2단계(성장기, 5세기 3/4분기)는 대형목곽묘가 줄어들고 더욱 세장한 대형 수혈식석곽묘가 매장주체부인 봉토 20~30m급의 거대 고총고분의 등장으로 하며, 벽석 축조기법에서도 판상활석의 크기나 두께가 일정하여 기술적으로 안정된 단계로 설정하였다. 제3단계(발전기, 5세기 4/4분기)는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최대전성기로 목곽묘의 축조는 중단되고, 수혈식석곽묘가 전역에 확산되어 고총고분이 증가되는 특징으로 구분하였고, 이 단계에 감실이 설치된 고총고분의 수가 급격히 많아진다고 하였다. 마지막 4단계(쇠퇴기, 6세기 1/4분기)에는 석곽 내부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지만, 고총고분의 수가 감소하고,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이 백제와 고구려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등장하는 시기로 보았다.

조영현<sup>13)</sup>은 고총단계(5세기 2/4분기)가 되면, 가야권역의 매장주체부는 기본적으로 석축조로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지역색을 드러낸다고 보고, 諸가야의 주요 고분군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아라가야의 함안 도항리고분군에 대한 특징을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 ①묘광은 넓고 묘광과 벽석 사이는 다량의 위석

12) 조수현, 『함안지역의 수혈식석곽묘』, 咸安博物館圖錄(특별논고), 咸安博物館, 2004, 204~215쪽.

13) 조영현, 『伽耶의 墓制에 나타난 轉換期的 特徵과 樣相: 출현기 高塚의 築造構造를 중심으로』,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115~180쪽.

을 채움, 낙동강 이동지역 고층에서 보이는 점과 유사함, ②세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벽면이 약간 내경, 벽석재는 시기가 내려오면 얇은 판상할석 사용, 벽체 상단 구석부분은 말각하지 않는 것이 대세, ③바닥의 부석(시상)시설은 전면→주피장자 안치된 범위 중심으로 변화, 상면부석 위의 별도의 역석시상은 판상석으로 변함, ④매장주체부의 위치가 지하식→반지하식으로 변화, ⑤감 또는 감실로 표현된 벽체의 흠은 이 고분군의 최대 특징,<sup>14)</sup> ⑥<현>15·22호와 <문>54호 석실(곽) 복단벽부 양쪽 구석부분에 같은 높이로 설치된 작은 돌선반의 존재, ⑦도항리분군의 수혈식석곽묘에는 일반적으로 호석, 주구, 좁석을 시설하지 않음, ⑧도항리고분군 고층의 봉분에 구획성토방식이 적용됨, ⑨순장이 이루어짐, 순장자는 주축과 횡치하고 2~7인 순장, ⑩봉분 외기저면에서 배장곽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하였다.

조영제<sup>15)</sup>는 함안 도항리·말산리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진주 우수리·무촌고분군 등 서부경남지역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비교 검토한 결과, 각 지역의 수혈식석곽묘가 수용되는 양상은 앞 시기의 목곽묘가 축조되는 상황에서 수혈식석곽묘의 내부주체인 석곽 축조기법만 채용된 것으로 보였다. 특히, 도항리·말산리고분군의 경우 목곽묘에서 나타나는 유구 바닥의 전면에 자갈들을 한 벌 칸 뒤 주피장자 공간에만 1~2단의 자갈을 더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고 피장자의 두상과 족하 양쪽에 토기들을 부장하는 현상은 동시기이거나 약간 늦게 축조되고 있는 수혈식석곽묘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양 묘제에서 출토된 유물이 그대로 계승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축조한 집단이 별개가 아니라 동일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즉, 서부경남 가야의 수혈식석곽묘는 새로운 집단이 출현함으로써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여 형식변천을 거듭하고 있던 김해·부산지역으로부터 석곽 축조기법만을 받아들여서 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로 대각 중위에 회전침선문이 돌려진 특수한 형태의 고배의 존재를 들었다.

정현광<sup>16)</sup>은 함안 옅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의 ①장축방향, ②평면형태, ③바닥시설, ④석곽의 규모, ⑤축조수법, ⑥유물배치상태 등의 구조적 속성과 부장유물을 검토하여 단계 설정하였다. 옅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를

14) 조영현은 감실의 역할을 이주현(1996)의 봉토압에 의한 개석의 반절을 방지하기 위한 목조 가구 시설물로 보는 견해와 조수현(2004)의 주피장자를 안치한 목곽의 목개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15) 조영제, 『서부경남 加耶 竪穴式石槨墓의 수용에 관한 연구』, 『嶺南考古學報』40, 嶺南考古學會, 2007, 51~74쪽.

16) 정현광, 『V.고찰』, 『咸安 梧谷里 遺蹟 I·II』, 慶南文化財研究院, 2007, 120~186쪽.

크게 5단계로 구분하고, I 단계는 수혈식석곽묘의 출현기로 5세기 1/4분기로 편년하였고, II 단계는 수혈식석곽묘의 발전기로 5세기 2/4분기, III·IV 단계는 수혈식석곽묘가 발전하여 전성기에 달하는 5세기 3/4~4/4분기로 구분하고, V 단계는 횡혈식석실묘가 출현하고 수혈식석곽묘가 쇠퇴하는 단계로 6세기 1/4분기로 보았다. 여기서 고배와 파배를 중심으로 한 형식조열을 통해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을 오크리<경>29·33·69호를 표지로 기존의 말산리파괴분<경>의 5세기 2/4분기에서 한 분기 올려 5세기 1/4분기로 편년하였다. 오크리고분군 집단의 성격에 관해서는 수혈식석곽묘를 축조할 수 있는 집단을 지방의 재지층 중에서도 다소 유력층으로 상정하고, 출토된 무기류 등을 동시기 김해 안양리고분군 등과 비교검토하여, 오크리고분군이 위치한 칠원 지역이 당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감안해서 안라국의 통제를 받는 군사적 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이상 아라가야의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구조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물의 편년을 통한 단계설정,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변화양상과 출현 시기 등의 전개양상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에서의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은 5세기 전반대로 보고 있으며, 주변고분군인 오크리고분군의 경우, 정현광이 5세기 1/4분기로 편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렇지만, 주로 통시적인 편년에 의한 묘제의 변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묘제의 변천 또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조수현과 정현광의 연구정도에 불과하다. 상기의 연구경향을 종합할 때, 당시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를 비롯한 목곽묘에 투영된 위계(신분질서) 등에 대한 설명은 시도되지 않았고, 아라가야의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 변화를 통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대형봉토고분이 조영된 아라가야의 최고 전성기의 묘제인 수혈식석곽묘의 분석은 당시 아라가야 사회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묘제의 변천관계를 검토해 보고, 수혈식석곽묘에 투영된 당시 위계(신분질서)를 정리하여, 아라가야 사회의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 III. 아라가야 묘제의 유형화

유형(類型)의 의미는 전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화시킨 지적구축물



도 1. 아라가야 고분군의 위치

을 말하는 것<sup>17)</sup>으로 모델(model)이라는 용어로 환치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아라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분류에는 내부구조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관곽의 개념을 채용하여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곽개념은 당시 葬制에 반영된 신분질서 등 규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의 주대 예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관곽제도의 규율성은 삼한~삼국시대의 무덤에 적용된 사례는 금관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분석으로 파악되었다.<sup>19)</sup> 따라서, 본장에서는 아라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관곽개념을 적용하여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諸가야 지역의 무덤을 동일 시각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1. 목곽묘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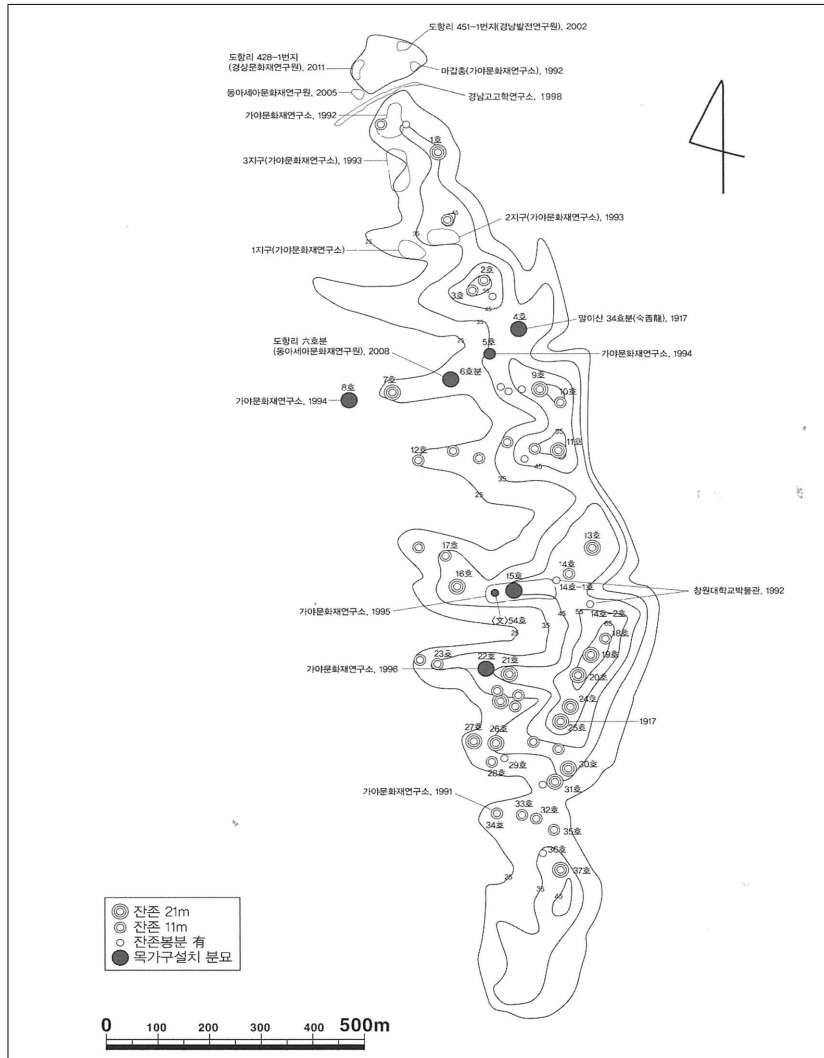
아라가야의 목곽묘는 도항리고분군<sup>20)</sup> 구릉의 북쪽 일대와 남강연안의 황사

17) 최경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東亞文化』12,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2, 5~46쪽.

18) 신용민,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 중국 목곽묘를 중심으로』, 『弁·辰韓의 世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학술발표회, 1998, 85~109쪽; 『漢代 木槨墓 研究』, 學研文化社, 2000.

19) 최경규, 앞의 논문, 2012.

2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道項里古墳群 I~III』, 1997·1999·2000; 『咸安馬甲塚』, 2002



도 2. 도항리고분군 유구분포도(서영민·여창현 2012에서 전재)

리고분군,<sup>21)</sup> 윤외리고분군,<sup>22)</sup> 칠원 오곡리고분군<sup>23)</sup>에서 조사되었다. 아라가야의 목곽묘는 도항리 북쪽 구릉부에서 3세기대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지만, 수적으로 상

; 경남고고학연구소, 『道項里·末山里遺蹟』, 2000; 경상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고분군』, 2011.

21) 경상대학교박물관, 『宜寧 禮屯里古墳群』, 1994.

2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輪外里墳墓群發掘調査報告』, 『咸安岩刻畫古墳』, 1996, 141~211쪽.

23) 창원대학교박물관, 『咸安 梧谷里遺蹟』,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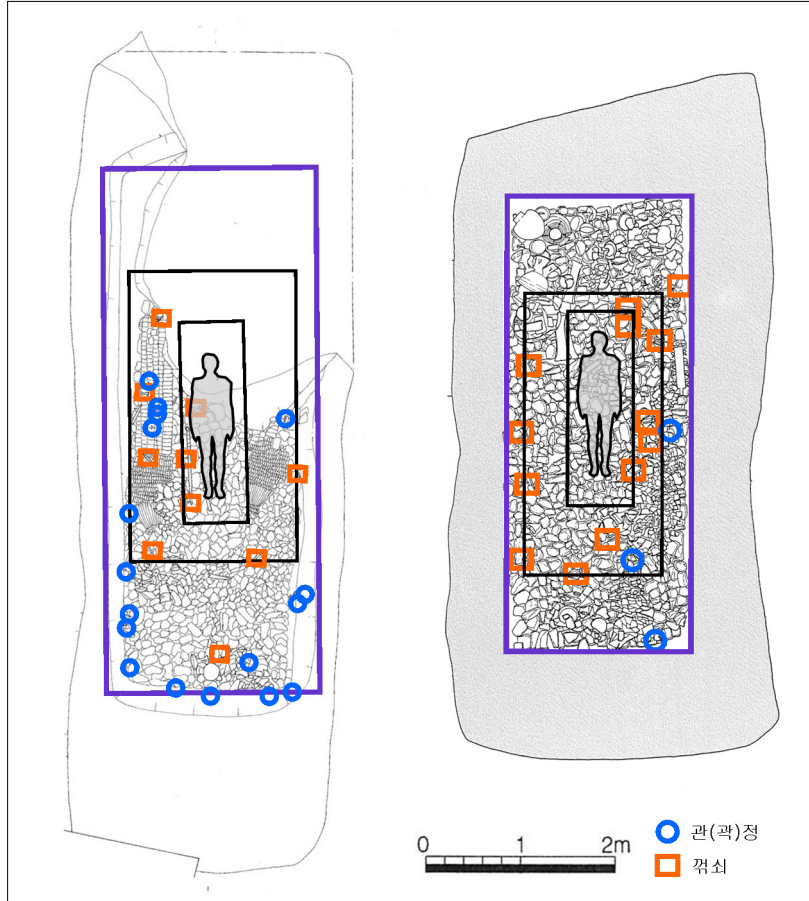
당히 미흡하다. 본격적인 목곽묘의 조영은 4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며, 중심고분군인 도항리와 주변고분군인 윤외리와 예둔리고분군에서 동시에 조영되는 양상이다. 목곽묘의 유형분류는 부장품의 배치와 꺾쇠·관정 등 葬具의 출토위치를 통한 관곽의 구조복원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매장주체부의 위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규모와 내부공간의 활용패턴,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을 동시에 반영하여 유형화 분류하였다.

#### 1) 아라가야 목곽묘 I 유형

목곽묘 I 유형은 꺾쇠와 관정 등 葬具의 출토위치로 볼 때, 목곽의 중앙부에 棺箱을 배치하고 이를 두른 內槨을 구비한 1棺2槨의 구조이다. 내곽의 존재는 葬具 외에도 토층상의 변화양상과 부장유물의 배치상태 등으로 파악가능하다. 금관가야의 김해지역 목곽묘에서 보이는 목곽의 축조와 관계된 주혈은 확인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I 유형은 오곡리<창>5호를 제외하면 모두 도항리고분군에서만 조영되었다. 오곡리<창>5호의 경우, 1관2곽의 구조로 축조되었지만, 규모면에서 도항리고분군에서 조영된 목곽묘보다 작으며, 부장된 유물 또한 토기류 위주여서 중심고분군의 I 유형과는 다소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물부장은 중앙의 내곽을 중심으로 양단벽 아래인 頭箱과 足箱, 內槨 내 棺箱의 좌우측인 邊箱에 이루어졌다. 양단벽 아래의 頭箱과 足箱에는 주로 토기류를 집중 부장하였는데, 주로 頭箱인 북쪽에는 발형기대, 노형기대, 단경호 등과 같은 대형기종을 부장하고, 발치쪽의 足箱에는 고배류 등의 소형기종을 부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곽 내의 주피장자<sup>24)</sup>의 좌우측과 내곽과 외곽 사이의 공간인 邊箱에는 유자이기, 철모, 환두대도 등의 철기류를 주로 부장하였다. 위세용 부장품인 마갑과 마주, 재갈, 안교 등의 철기류는 일부 주피장자의 두향인 북쪽 부분에 부장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장위치가 정연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내곽 또는 관상부에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I 유형의 대표유구인 마갑총의 경우에는 내곽 내의 중간위치에 시상을 높게 올려 단면 ‘ㅍ’자상의 관대시설을 마련하였는데, 이곳에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좌우측에는 마갑을 정연하게 깔았다. 마갑의 상부에는 철모와 단경호 등의 토기가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I 유형 목곽묘의 바닥에는 <문>36호를 제외하면 모두 전면 혹은 양단벽 아래의 부장공간 일부를 제외한 공간에 시상을 마련한

24) 각 유형의 도면 내에 표현된 피장자의 신장은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인골의 평균 신장인 남성 162.9cm, 여성 150.3cm의 연구결과(金鎭晶 외, 『金海 禮安里古墳群 出土人骨 (I)』, 『金海禮安里古墳群』 I, 1985, 364쪽.)를 참고하여 약 160cm 정도로 표현하였다.



도 3. 아라가야 목곽묘 I 유형(S=1/80)  
(左 : 마갑총 右 : 도항리<문>10호)

구조이다. 목곽묘 II 유형부터는 바닥에 시상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곽묘 구조에 있어서 바닥시상의 유무는 위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 유형 대부분의 유구(마갑총·<문>3·9·10·20·27·48호)는 주피장자의 목관이 안치되는 바닥 중앙부분에 단면 ‘凸’자상의 관대시설을 마련하였으며, <문>36·48호는 주피장자 공간에 철정을 깔아 관대시설로 이용하였다. <문>36호는 1열 20매씩, 2열 40매의 철정을 중앙에 깔아 棺床으로 사용하였으며, <문>48호는 ‘凸’자상의 시상상부에 철정을 깔았는데, 소형철정을 2열로 놓고 양 가장자리 부분에 대형철정을 놓은 구조로 철정의 표면에 목질흔적이 다량 수착되어 있어 목관의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부장유물 중, 무구인 冑·短甲과 마갑·마주·채갈 등의 마구류와 철정 등의 위세용 유물이 I 유형에서만 부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 또한, 충전토 내와 봉토 내의 유물을 부장하는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또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목곽묘 I 유형에서만 나타난다.<sup>25)</sup>

목곽묘 I 유형의 규모는 묘광은 평균 659.6×286.2cm이며 면적은 평균 19.3㎡(5.8평)에 달한다. 목곽의 규모는 494.9×172.5cm로 면적은 8.7㎡(2.6평)이다. 장단비는 묘광 2.3:1, 목곽 2.9:1로 장방형을 띤다. 주변고분군인 오곡리<창>5호의 묘광은 592×262cm, 목곽은 418×130cm로 평균치보다 규모가 작으며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의 I 유형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일유형으로 축조되었다고 해도, 규모와 부장품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도항리고분군에 조영된 아라가야 목곽묘 I 유형은 수장급 무덤으로 파악된다.

표 1. 아라가야 목곽묘 I 유형 묘광·목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I 유형	659.6	286.2	2.3	19.3	494.9	172.5	2.9	8.7
해당 유구	마갑총, 도<문>3·9·10·20·27·36·48, 도<경>13, 오<창>5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오<창> : 오곡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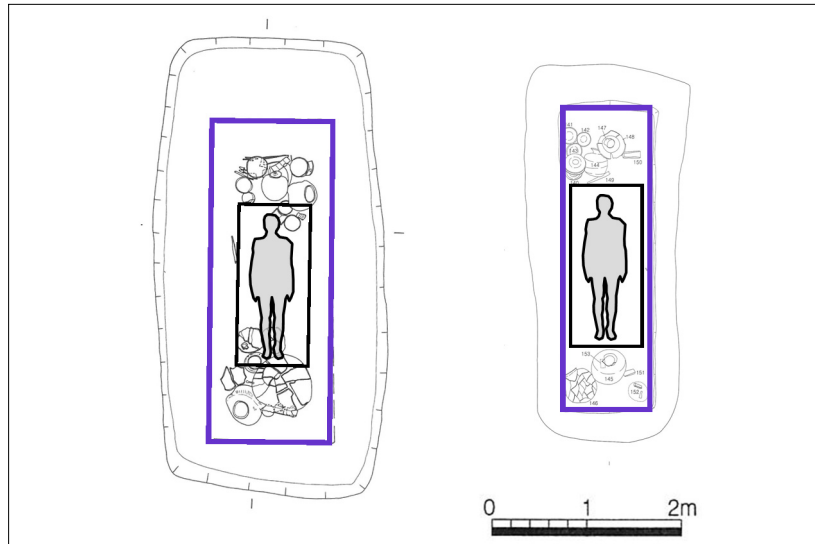
## 2) 아라가야 목곽묘 II 유형

목곽묘 II 유형은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 뿐만 아니라, 주변고분군인 오곡리, 현동고분군에서도 조영된다. 목곽묘 I 유형과 유물부장의 공간 구조는 동일하지만, 내곽이 시설되지 않은 1椁1槨의 구조이다.<sup>26)</sup> 관곽구조 외에 우선 I 유형과 가장 큰 차이는 바닥에 시상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바닥시설의 유무는 아라가야의 목곽묘에서는 시간성도 반영하지만, 무엇보다 위계적인 차이의 표현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오곡리<창>8호의 경우, II 유형이지만 소형할석 시상이 마련된 유구도 있지만,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

<sup>25)</sup> 마갑총의 충전토 내에 이전시기의 와질토기편을 매납하였으며, <문> 36호에서는 봉토 내에 대형고배, 장경호, 단경호, 주조철부 등 다량의 유물을 매납하였다.

<sup>26)</sup> 아라가야 목곽묘 II 유형에서는 葬具인 꺾쇠와 관정이 출토되지 않은 점이 주목되는데, 목곽과 목관을 어떤 식으로 결구하였는지 앞으로의 자료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葬具의 사용이 위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요소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내에서는 II유형의 목곽묘에서 바다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심고분군 내에서는 당시 장제의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도 4. 아라가야 목곽묘 II유형(S=1/80)  
(左 : 현동50호 右 : 도항리<경상>17호)

유물부장은 주피장자를 안치한 棺箱이 중심에 놓이고, 頭箱과 足箱에 토기류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3공간 구조이다.<sup>27)</sup> I유형에 비해 목곽의 폭이 좁아, 주피장자의 좌우측 즉, 邊箱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목관과 목곽 사이의 공간이 있을 경우, 일부 철기류의 부장이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으로 마련된 공간은 아니다. 토기는 주로 고배, 개, 파배, 직구호, 대부직구호, 소형기대 등의 소형기종과 호류와 발형기대, 토형토기 등의 대형기종이 부장이 되며, 발형기대는 I유형의 경우, 최대 4점 정도로 다량 부장이 이루어진데 반해, II유형에서는 부장수량이 1~2점 정도로, 수량면에서 위계차를 보인다. I유형에서는 대형기종을 주로 頭箱에 부장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II유형에서는 특별한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 철기류는 도자, 철부, 철검, 철착 등의 농공구 위주의 부장이 이루어졌으며, 무구로는 대도, 철모, 철촉 중에서 일부만 부장되었다. I유형에 부장된 위세용 유물인 갑주류, 마구류의 부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일부 유자이기와 소량의 철정이 부장된 예는 있다.

목곽묘 II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99.0×163.0cm로 면적은 6.6㎡(2.0평)이며, 목곽은 332.3×105.9cm로 면적은 3.6㎡(1.1평) 정도로 I유형과는

<sup>27)</sup> 금관가야 목곽묘 III유형과 동일한 구조이다.(최경규, 앞의 논문, 2012,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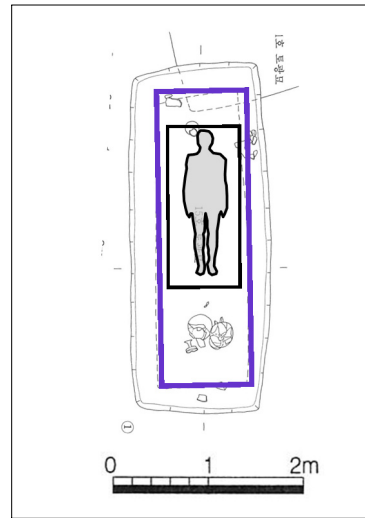
상당한 규모차이를 보인다. 장단비는 묘광 2.5:1, 목곽 3.2:1로, 목곽의 경우 I 유형에 비해 좀 더 세장하다.

표 2. 아라가야 목곽묘 II유형 묘광·목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II유형	399.0	163.0	2.5	6.6	332.3	105.9	3.2	3.6
해당 유구	도<경>33, 도<문>6·35·44·50, 도<경상>11·12·13·15·16·17 오<창>56·8·10, 현50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경> : 도항리<경남고고학연구소>,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경상> : 도항리<경상문화재연구원>, 오<창> : 오곡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현 : 현동								

### 3) 아라가야 목곽묘 III유형

목곽묘 III유형은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보다 주변고분군인 마산 현동과 윤외리고분군에서 주로 축조되는 유형이다. 규모면에서 목곽묘 II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마산 현동43호의 유물 배치상을 통해, 매장주체부는 棺箱과 足箱으로 이루어진,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2공간 구조로 볼 수 있다. 바닥시설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주로 토기류로 고배, 파배, 단경호를 기본으로 소량만 부장된다. 위세를 나타내는 기대류의 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철기류는 현동 43호를 제외하면 대도, 철촉, 철모 중 일부만 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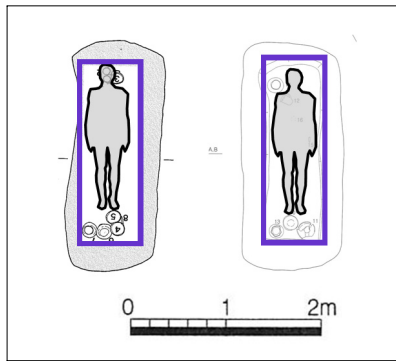
도 5. 아라가야 목곽묘 III유형 (현동 15호, S=1/80)

목곽묘 III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86.3×155.0cm로 면적은 6.1m<sup>2</sup> (1.6평)이며, 목곽의 규모는 316.4×100.0cm로 면적은 3.2m<sup>2</sup> (0.8평)이다. 목곽묘 II유형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물의 질적인 부분에서 위계를 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장단비는 묘광 2.5:1, 목곽 3.2:1로, 목곽묘II유형과 동일하다.

표 3. 아라가야 목곽묘 III유형 묘광·목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III유형	386.3	155.0	2.5	6.1	316.4	100.0	3.2	3.2
해당 유구	현15·43, 도<문>49, 윤1·7, 오<창>3·12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현 : 현동,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오<창> : 오편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4) 아라가야 목곽묘 IV유형



도 6. 아라가야 목곽묘 IV유형  
 (左 : 도항리<문>33호  
 右 : 도항리<경상>4호, S=1/80)

목곽묘 IV유형은 III유형과 동일하게,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보다 주변고분군에서 주로 축조된 유형이다. 아라가야 권역에서는 현재까지 예둔리고분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묘광의 길이가 250cm 이하로 내부공간 구조는 규모로 볼 때, 관을 사용하지 않은 棺箱으로만 이루어진 1공간의 단일 구조로 파악된다. 목곽 내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발치 혹은 머리말의 공간에 소량의 토기를 부장하였다. 부장된 토기는

고배, 파배, 단경호가 기본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철기는 농공구류인 도자, 철부, 철검 중 일부만 부장된다.

표 4. 아라가야 목곽묘 IV유형 묘광·목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IV유형	228.9	102.8	2.3	2.4	183.7	65.0	2.9	1.2
해당 유구	도<문>33, 도<경상>4·7·8, 윤5, 예5·36·42·44·48·51·52·54·55, 현6·32·65, 오<창>7·15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현 : 현동, 윤 : 윤외리, 예 : 예둔리,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경상> : 도항리<경상문화재연구원>, 오<창> : 오편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목곽묘 IV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228.9×102.8cm로 면적은 2.4㎡(0.7평)이며, 목곽의 규모는 183.7×66.0cm로 면적은 1.2㎡(0.4평)에 불과하다. 장단비는 묘광이 2.3:1, 목곽이 2.9:1로 장방형을 띤다.

## 2.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는 도항리고분군의 조사로 구조 및 규모 입지양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 일대에 조성된 대형봉토고분의 매장주체부가 모두 수혈식석곽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28)</sup> 그리고 최근에는 오탁리고분군에서 다수의 석곽묘가 조사됨<sup>29)</sup>으로 인해,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sup>30)</sup> 도항리고분군은 구릉의 정선부와 가지 능선을 따라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초대형분이 조성되고 그 주변으로 대형·중형고분이 배치되어 고분복합체(mound complex)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초대형~중형급의 봉토고분의 매장주체부가 수혈식석곽묘일 가능성이 높다. 수혈식석곽묘는 목곽묘와 동일하게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으며, 두향은 장축방향이 남-북향일 경우에 북향이 우세하며, 동-서향일 경우에는 주로 동향이다. 도항리고분군의 경우, 구릉의 북쪽에서부터 조영이 이루어지며, 점차 남쪽 구릉으로 이어지다가, 6세기대에 들어와 묘역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북쪽능선에 앞선 시기의 목곽묘를 파괴하고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sup>31)</sup>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는 함안지역의 기반층을 이루고 있는 적갈색계의 혈암을 두께 20cm 내외의 비교적 얇은 판상의 활석을 사용하여 네벽을 수직상으로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가 가야권역에서 수혈식석곽묘가 가장 먼저 출현한 금관가야와 비교해서 상당히 세장한 특징을 보인다.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작업은 목곽묘와 동일하게 관곽개념을 적용하고, 매장주체부의 위계를 반영하는 규모, 내부공간의 활용패턴,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I·II 유형은 순장의 규모와 세부적인 축조수법 등의 차에 의해 세분이 가능하였다. 각 유형별 상세는 다음과 같다.

28) 이주현, 앞의 논문, 2000, 244쪽.

29) 경남문화재연구원, 『咸安 梧谷里遺蹟』 I, 2007; 우리文化財研究院, 『咸安 梧谷里 28番地 遺蹟』,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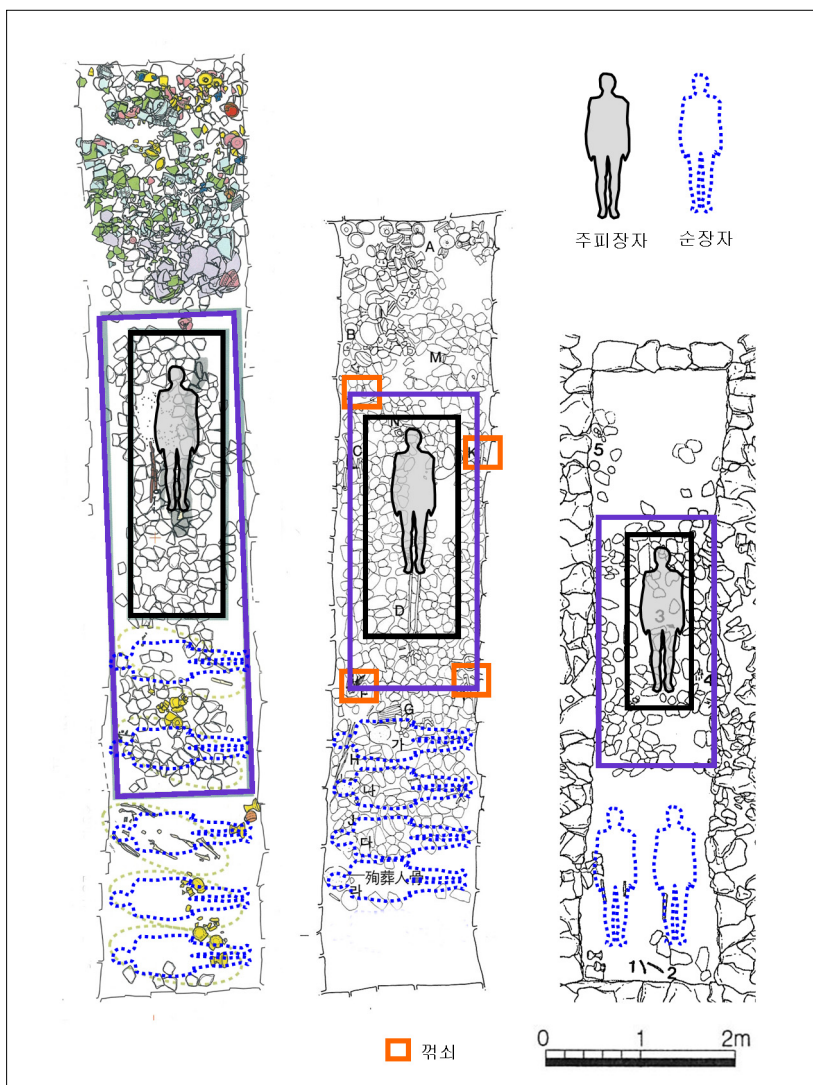
30) 함안 오탁리고분군이 조사되기 전에 아라가야 권역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는 4기에 불과하였다.

31) 조수현, 앞의 논문, 2004, 206쪽.

1)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 유형

수혈식석곽묘 I 유형은 석곽의 장단비가 4.5:1 이상의 극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매장주체부가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순장자공간]으로 명확하게 구획된 1棺2槨의 3공간구조이다.

이러한 내부공간 활용이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도 7.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 유형(S=1/80)  
 (左 : I-1유형 도<현>6호 中 : I-2유형 도<문>54호  
 右 : I-3유형 도<문>51호)

있다. I 유형의 벽석은 세장한 할석을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가로놓혀쌓기를 기본으로 하였다. 비교적 수평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I 유형은 석곽 벽의 높이가 150~200cm에 달하는 대형급의 무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60cm 정도에서 수평줄을 맞추어 3단계 정도의 공정으로 구분 축조한 특징이 벽면에서 관찰된다.

I 유형은 순장자 위치와 순장인수, 석곽의 규모, 들보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다시 3개의 소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sup>32)</sup>

먼저, I-1유형은 최고위계의 수혈식석곽묘로 바닥은 벽석에 사용한 석재 외는 다른 원마도가 좋은 소형천석을 이용하여 <현>15호를 제외하고는 전면에 깔아서 시상을 설치하였다.<sup>33)</sup> 공간구획된 순장자공간 및 내곽 안의 주피장자 받치 아래에 순장자가 안치된 구조로 순장자수는 2~5명<sup>34)</sup> 정도이다. 그리고 네 벽석의 상단부에는 들보시설<sup>35)</sup>이 마련되어 있다. 유물부장은 주피장자의 두향쪽인

<sup>32)</sup> I-2·3유형은 I-1유형의 대형봉토고분 주변에 축조되며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 차이, 순장의 규모 등으로 볼 때, 고분군 복합체 내에서 배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sup>33)</sup> I 유형 수혈식석곽묘의 바닥에 사용한 시상석은 화강섬록암으로 도항리 구릉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인근의 쌍계천이나 함안천 등에서 운반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류춘길, 『부록2, 함안 도항리 6호분 축조 기술에 대한 지질공학적 연구』, 『咸安道項里六號墳』,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8, 50~52쪽.)

<sup>34)</sup> 도항리 <현>4호분의 경우, 이주현은 순장인골편의 출토위치와 분포범위, 순장자의 매장공간을 분석하여 순장자 6명이 남단벽부에 장축방향과 직교되게 병렬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주현, 앞의 논문, 1996.) 이주현의 분석 이후에 아라가야의 순장규모는 일반적으로 최소2명에서 최대6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라가야 순장자의 매장자세와 매장공간에 대해 정지한 분석을 행한 김수환은 아라가야 순장자의 매장자세는 완전한 신전장이 아닌 양팔을 바깥으로 약간 벌린 상태에서 주관절(肘關節)을 145~160° 정도 굽힌 자세로 매장된다는 것을 밝히고, <현>6호와 8호 등의 예로서도 이를 검증하여 <현>4호의 순장자는 5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김수환, 『阿羅加耶의 殉葬: 大型 殉葬墓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報』 55, 嶺南考古學會, 2010, 47~50쪽.)

<sup>35)</sup> 아라가야 대형 수혈식석곽묘에 설치된 들보시설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그 기능과 용도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이 들보시설에 대해 최초로 연구한 박경원은 등감시설로 파악하여 그 기능을 무덤의 내부를 밝히는 공간이라 하였다. 이후에 이주현은 벽석으로 사용한 석재가 세밀하게 접관암으로 봉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한 목가구를 위한 용도로 보았으며, 조수현은 감실이라는 용어를 부정하고 들보시설로 명명하며, 석곽 내부의 목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조기능적인 측면에서 벽석의 붕괴와 개석의 반절을 보호하는 시설로 보았다. <현>6호분을 조사한 신용민은 들보시설을 석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중관곽의 구조를 유지하는 다목적의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로 아라가야 최고신분의 관곽제도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서영민·여창현은 기존 연구에 사용된 감실, 등감, 벽감, 들보시설 등의 용어를 재검토하여 전통건축 용어의 '보공'과 '도리공'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이를 통칭하여 목가구라 명명하였으며, 그 기능은 분묘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 보았다. 들보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頭箱에 주로 토기류를 부장하였는데, 고배류-파배-단경호-장경호-기대-대호 순으로 소형기종에서 대형기종 순으로 부장하였다. 철기류는 환두대도, 철모, 물미 등은 주피장자의 신변 가까이 부장하였으며, 위세용 철기인 갑주와 마갑, 마주 등의 철기류는 출토위치로 볼 때, 내곽(棺箱)의 상부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장자가 안치된 공간에는 순장자 공헌품이 함께 부장되었는데, 순장자에게 공헌된 유물은 기본적으로 화염형투창고배를 비롯해, 파배, 파수부완, 소형기대 등의 소형기종의 토기류와 도자와 철검 등의 농공구류의 철기가 일반적인데, I-1유형 수혈식석곽묘의 순장자에게는 유자이기, 재갈, 운주, 행엽, 등자 등의 위세용 철기인 마구류 등도 공헌품으로 부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순장자는 세환이식과 유리제환옥으로 구성된 경식 등 장신구를 패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I-1유형은 아라가야 최고위계의 왕묘급에 해당되며, 여기에 순장된 인물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위계를 가진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1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m <sup>2</sup> )	용적율(m <sup>3</sup> )
I-1유형	1296.0	378.0	3.5	49.5	984.8	179.3	183.7	5.5	17.7	32.3
해당유구	도<현>4(구34)·6·8·15·22·34(암각화고분)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현> : 도항리<함안군에서 부여한 번호>										

I-1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1296.0×378.0cm로 면적은 49.5m<sup>2</sup>(15평)이며, 석곽은 984.8×179.3cm로 면적은 17.7m<sup>2</sup>(5.3평)에 달한다. 석곽 내의 용적율은 평균 32.3m<sup>3</sup>이다. 장단비는 묘광이 3.5:1, 석곽이 5.5:1로 묘광에 비해 석곽이 극세장방형을 띠며, 묘광과 벽석 사이의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이 공간에 벽석과 동일한 석재를 이용하여 뒷채움 하였다.

다음과 같다.

박경원, 『咸安地域의 照明用土器』,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4 ; 이주현, 『未伊山 34號墳의 再檢討』, 『碑吾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 조수현, 『加耶墓制의 龕室 再檢討 : 咸安 道項·未山里古墳群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報』35, 嶺南考古學會, 2004 ; 신용민, 『VI.종합 고찰』, 『咸安 道項里 6號墳』, 東亞細亞文化硏究院 2008 ; 서영민·여창현, 『함안 말이산고분군 목기구 설치분묘 재검토 : 용어 및 분묘구조를 중심으로』, 『考古廣場』10, 부산고고학연구회, 2012.

I-2유형은 I-1유형에 비해 석곽의 길이 약 140cm, 너비 약 30cm 정도의 규모 차이를 보인다. 바닥은 <문>54호 외에는 주피장자의 棺箱이 시설되는 공간에만 시상을 설치하며, 목관이 안치되는 곳에 단면 ‘凸’자상으로 단을 높게 올린단단지 <경상>10호와 같이 네 모서리에 판상석을 놓아 관대시설을 마련한 특징을 보인다. 순장자는 3~4인 정도가 안치되며, 주피장자의 곁내에는 순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I-1유형과 다른 점이다. <문>54호의 예로 볼 때, I-2유형에도 들보시설은 마련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의 부장패턴은 I-1유형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위세용유물면에서 찰갑과 마갑, 마주의 구성이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I-2유형의 자료수가 많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것은 I-1유형에서 부장되지 않던, 청동제 마령, 삼환령의 주술적 성격을 지닌 유물이 부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장유물에서의 차이가 당시의 신분질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순장자 공헌품은 화염형투창고배 정도만 출토되었으며, 순장자는 I-1유형과 동일하게 세환이식과 경식을 패용하고 있다.

표 6.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2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m <sup>2</sup> )	용적율(m <sup>3</sup> )
I-2 유형	1056.7	303.3	3.6	32.2	843.3	152.0	150	5.6	12.9	16.6
해당 유구	도<문>54, 도<경상>10호, 도<경발연>451-1번지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경상> : 도항리<경상문화재연구원>, 도<경발연> : 도항리<경남발전연구원>										

I-2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1056.7×303.3cm로 면적은 32.2m<sup>2</sup>(9.7평)이며, 석곽은 843.3×152.0cm로 면적은 12.9m<sup>2</sup>(3.9평)이다. 석곽의 내부면적은 I-1유형에 비하면 2/3정도의 규모이지만, 용적율은 평균 16.6m<sup>3</sup>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장단비는 묘광이 3.6:1, 석곽이 5.6:1로 I-1유형과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I-3유형은 I-2유형에 비해 석곽의 길이는 약 170cm 정도 줄었는데 너비는 동일한 것이 특징으로 아라가야 I-3유형의 규모가 순장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파악된다. 바닥은 전면시상과 주피장자공간인 중앙부시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주피장자의 棺箱이 안치되는 바닥에 특별한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벽석에 들보시설도 설치되지 않는다. 주피장자의 발치쪽인 足箱에 순장이

시행되었는데, I-1·2유형과는 다르게 순장자는 주피장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안치되는 것이 특징이며, 순장인수도 2인 정도에 불과하다. 유물부장패턴은 頭箱에 토기류와 철기류가 모두 부장되며, I-1·2유형에 비해 토기기종이 줄어, 고배, 개, 파수부완, 단경호, 장경호, 발형기대 정도만 부장된다. 철기류도 甕와 마구류는 부장되지만, 수량면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순장자 공헌품은 화염형투창고배와 도자, 철검 정도만 보이며, I-1·2유형의 순장자가 패용한 세환이식과 경식은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순장자의 위계차이도 수혈식석곽묘 유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3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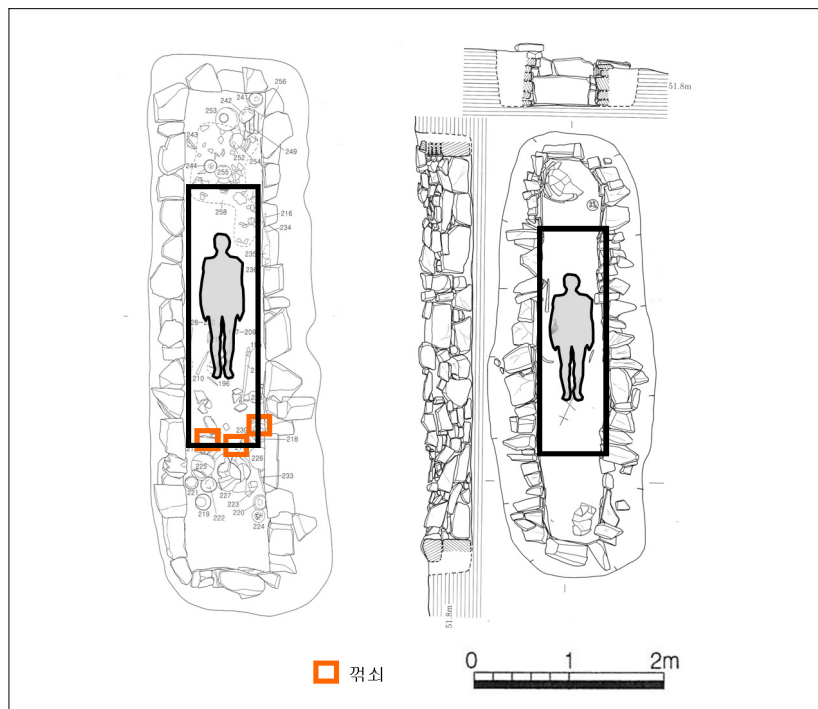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m <sup>2</sup> )	용적율(m <sup>3</sup> )
I-3 유형	960.0	354.0	2.8	33.9	666.0	147.6	110.0	4.5	9.8	11.1
해당 유구	도<현>5, 도<동>6-1, 도<문>38·39·51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현> : 도항리<함안군에서 부여한 번호>,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동> : 도항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I-3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960.0×354.0cm로 면적은 33.9m<sup>2</sup>(10.3평)이며, 석곽은 666.0×147.6cm로 면적은 9.8m<sup>2</sup>(3.0평)이다. I-2유형의 묘광과 규모면에서 유사하지만, 석곽의 규모는 면적을 기준으로 76% 정도로 줄었다. 용적율은 평균 11.1m<sup>3</sup>으로 I-2유형의 2/3정도(68%)이다. 장단비는 묘광이 2.8:1로 장방형을 띠며, 석곽은 4.5:1로 I-1·2유형에 비해 길이는 많이 줄었지만 순장자 안치를 위해 최소한의 너비를 유지하고 있어 극세장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2)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유형

수혈식석곽묘 II유형의 내부공간 활용은 I 유형과 동일하게 3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곽이 존재하지 않는 1椁1槨의 구조에 순장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II유형은 頭箱의 공간에는 토기류 및 철기류의 유물을 다량부장하고, 피장자의 발치쪽에 해당되는 足箱에는 순장자를 상징하는 화염형투창고배 정도만을 부장하여 일정공간이 공지로 남아 있는 II-1유형과 3공간구조이지만, 양단벽 아래를 토기류와 철기류의 부장공간으로 활용한 II-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세용 철기류인 성시구와 등자, 재갈, 운주, 안고

등의 마구류는 Ⅱ-1유형에서만 주로 출토되어 부장유물의 질적 차이를 보인다. Ⅱ-1유형은 대부분의 유구가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도항리 428-1번지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Ⅱ-2유형은 주변고분군인 오곡리, 예둔리고 분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I-1유형의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아라가야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수혈식석곽묘로 도항리구릉의 능선과 지능선의 중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I-2·3유형이 배치되는 고분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Ⅱ-1유형은 현재는 경전선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도항리 구릉과 단절되어 있지만 가장 북단부에 치우친 곳에 별도의 묘역을 조성하며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sup>36)</sup>



도 8.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Ⅱ유형(S=1/80)  
(左 : Ⅱ-1유형 도<경상>5호 右 : Ⅱ-2유형 예둔리 40호)

<sup>36)</sup> 수혈식석곽묘 축조단계에 Ⅱ-1유형의 수혈식석곽묘의 피장자집단은 도항리 구릉의 중심묘역 중에서 일정 구역에 별도의 묘역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볼 때, Ⅱ-1유형 피장자들은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봐야겠다.

II-1유형은 바닥에는 주피장자공간이 중앙부에 소형자갈과 소형관상할석을 등성등성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다. 특징적으로 시상 상부에 목관이 안치되는 곳에 관상할석을 이용하여 관대석을 시설한 것이 주목된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I 유형과 같이 점판암계의 석재를 판상으로 치석하여 가로놓혀쌓기하여 축조하였는데, 단벽에서 일부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개석이 잔존한 유구가 거의 없어 석곽 벽의 원래 높이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잔존높이가 대부분 100cm 이하로 I 유형과 비교하면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장유물로는 무구는 거의 부장되지 않았으며, 마구류와 성시구 등의 위세용 철기가 소량 부장되었다.

II-1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609.4×200.1cm로 면적은 12.4㎡(3.7평)이며, 석곽은 484.4×91.2cm로 면적은 4.4㎡(1.3평)이다. I-3유형 석곽규모에 비해 면적은 1/2로 줄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장단비는 묘광이 3.1:1, 석곽은 5.4:1로 극세장방형을 띤다.

표 8.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1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	용적율(㎡)
II-1 유형	609.4	200.1	3.1	12.4	484.4	91.2	-	5.4	4.4	-
해당 유구	마갑총1호석곽, 도<문>40, 도<경상>1·2·5·7·8·9·13·14·17·18·19, 오<우리>A-M1, 예1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경상> : 도항리<경상문화재연구원>, 오<우리> : 오곡리<우리문화재연구원>, 예 : 예둔리										

II-2유형은 현동 64호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시상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일부 바닥을 점토 정지하였다. II-1유형에 비해, 벽석의 축조수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장단벽의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하는 수법이 II-2유형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부장은 양단벽 아래에 주로 토기류를 집중 부장하였는데, 소형기종과 대형기종을 구별하여 부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토기류 중 고배의 경우 소가야, 비화가야, 대가야계의 외래계 유물의 부장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I 유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외래계 토기의 부장은 II-1유형에도 일부 나타나지만, II-2유형에서 좀 더 현저한 것이 주목된다.<sup>37)</sup> 철기류의 경우에는 마구류의 부장이 거의 없으며, 농공구류 위주의

부장이 우세하다.

Ⅱ-2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477.6×186.5cm로 면적은 9.0㎡(2.7평)이며, 석곽은 383.6×81.6cm로 면적은 3.2㎡(1.0평)로, Ⅱ-1유형보다 규모가 작다. 개석이 잔존한 석곽을 기준으로 벽석 높이의 평균은 약 66cm 정도로 용적율은 2.2㎡에 불과하다. 장단비는 묘광이 2.7:1의 장방형을 띠고, 석곽은 5.0:1로 극세장방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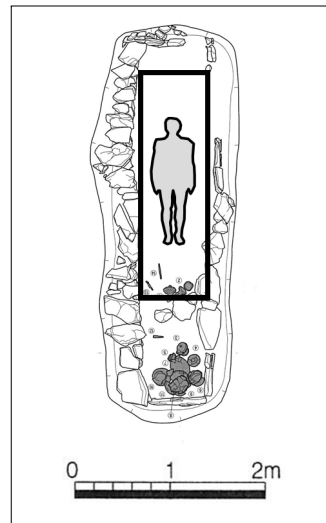
표 9.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Ⅱ-2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	용적율(㎡)
Ⅱ-2 유형	477.6	186.5	67.9	9.0	383.6	81.6	66.0	5.0	3.2	2.2
해당 유구	현64, 오<경>5·11·17·19·32·34·46·58·93·99, 오<우리>A-11·13/B-1·6·9·11, 예28·33·40·46·57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현: 현동, 오<경>: 오곡리<경남문화재연구원>, 오<우리>: 오곡리<우리문화재연구원>, 예: 예둔리										

### 3)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

수혈식석곽묘 Ⅲ유형의 매장주체부 공간 활용은 한쪽 단벽 아래에 유물을 부장한 2공간 구조이며, 주피장자를 안치한 목관 내부 혹은 상부에 소형토기류를 부장한 유형이다. 도항리 <문>13호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葬具인 껍쇠 혹은 관정이 출토되지 않아, 목관의 사용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장자가 안치된 부분에 바닥에서 유물이 뜬 상태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 상부에 유물을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Ⅱ-2유형과 동일하게 주변고분군인 오곡리와 예둔리고분군에 주로 분포한다. 주축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등고선과 나



도 9.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 (오곡리(우리)B-7호, S=1/80)

37) 위세용 부장품이 아닌, 일반생활 용기인 토기류에서 외래계 유물의 부장이 현저한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Ⅱ유형 피장자의 경우, 대외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담당할 職能과 관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란하다. 바닥시설은 도항리<문>13호와 <경>31호는 전면에 소형할석과 판상할석을 깔아 시상을 설치하였지만, 주변고분군의 III유형은 바닥에 시상을 마련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관대석과 관고정석이 마련된 경우는 있으며, 바닥을 점토정지한 유구도 있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장단벽 모두 최하단에 세워쌓기가 우세하며, 일부 양단벽의 축조수법을 달리한 경우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한단벽 아래에 집중 부장된 토기류는 주로 개배, 파배, 유개고배, 대부직구호, 단경호이며, 철기류는 철촉 소량과 도자, 철부, 철검 등 농공구 일부만 부장된다.

표 10.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I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m <sup>2</sup> )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m <sup>2</sup> )	용적율(m <sup>3</sup> )
II-2 유형	335.5	136.9	2.5	4.6	269.0	56.8	44.5	4.8	1.5	0.7
해당 유구	도<문>13, 도<경>31, 오<경>33·85·95 오<우리>A-7/B-7·8, 예4·25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경> : 도항리<경남고고학연구소>, 오<경> : 오편리<경남문화재연구원>, 오<우리> : 오편리<우리문화재연구원>, 예 : 예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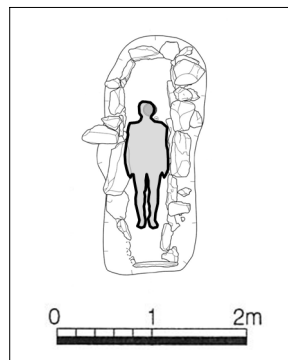
III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35.5×136.9cm로 면적은 4.6m<sup>2</sup>(1.4평)이며, 석곽은 269.0×56.8cm로 면적은 1.5m<sup>2</sup>(0.5평)로, II-2유형보다 절반 정도의 규모이다. 개석이 잔존한 석곽을 기준으로 벽석 높이 약 40~60cm 정도로 용적율은 0.7m<sup>3</sup>에 불과하다. 장단비는 묘광이 2.5:1의 장방형을 띠고, 석곽은 4.8:1로 극세장방형이다.

#### 4)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V유형

수혈식석곽묘 IV유형은 석곽의 길이가 대체로 200cm 미만의 소형으로 규모로 볼 때, 유소아묘의 가능성이 있다. 매장주체부의 내부 공간구조는 목관만 안치된 1공간 구조로, 유물은 소형토기 몇 점만 목관 내 혹은 관상부에 부장된다.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에서 가장 하위 위계의 유형으로 파악된다. 바닥은 점토를 사용하여 정지한 경우가 다수이며, 도항리<문>4-가호는 잔자갈로 전면시상을 설치하였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장단벽 모두 최하단석 세워쌓기하였으며, 일부 치석되지 않은 석재로 가로·세로쌓기를 혼용한 경우도 보인다. 부장유물은 고

배, 개, 파배, 장경호 정도이고, 철기류는 철촉과 도자, 철검 1~2점 정도에 불과하다.

Ⅳ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241.5×118.6cm로 면적은 2.9㎡(0.9평)이며, 석곽은 185.1×53.6cm로 면적은 1.0㎡(0.3평)로, Ⅲ유형의 3/2 정도의 규모이다. 개석이 잔존한 석곽을 기준으로 벽석 높이 약 50cm 정도로 용적율은 0.4㎡에 불과하다. 장단비는 묘광이 2.1:1의 장방형을 띠고, 석곽은 3.8:1로 세장방형이다.



도 10.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  
(오곡리(우리)A-3호, S=1/80)

표 11.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 묘광·석곽 규모 평균치

유형	묘광(cm)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	용적율(㎡)
Ⅱ-2 유형	241.5	118.6	2.1	2.9	185.1	53.6	44.3	3.8	1.0	0.4
해당 유구	도<문>4-가, 도<경상>1·3, 오<경>22·35·48·86 오<우리>A-3, 예17·41·50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도<문> : 도항리<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도<경상> : 도항리<경상문화재연구원>, 오<경> : 오곡리<경남문화재연구원>, 오<우리> : 오곡리<우리문화재연구원>, 예 : 예둔리										

### Ⅲ. 수혈식석곽묘의 전개양상

본 장에서는 아라가야의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변화과정과 수혈식석곽묘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단계설정은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획기를 적용하였으며, 편년안의 기준은 박광춘의 아라가야 토기편년<sup>38)</sup>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연구자<sup>39)</sup>들의 상대편년을 참고하

<sup>38)</sup> 박광춘, 『아라가야 토기의 편년적 연구』, 『咸安道項里 6號墳』,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8, 282~3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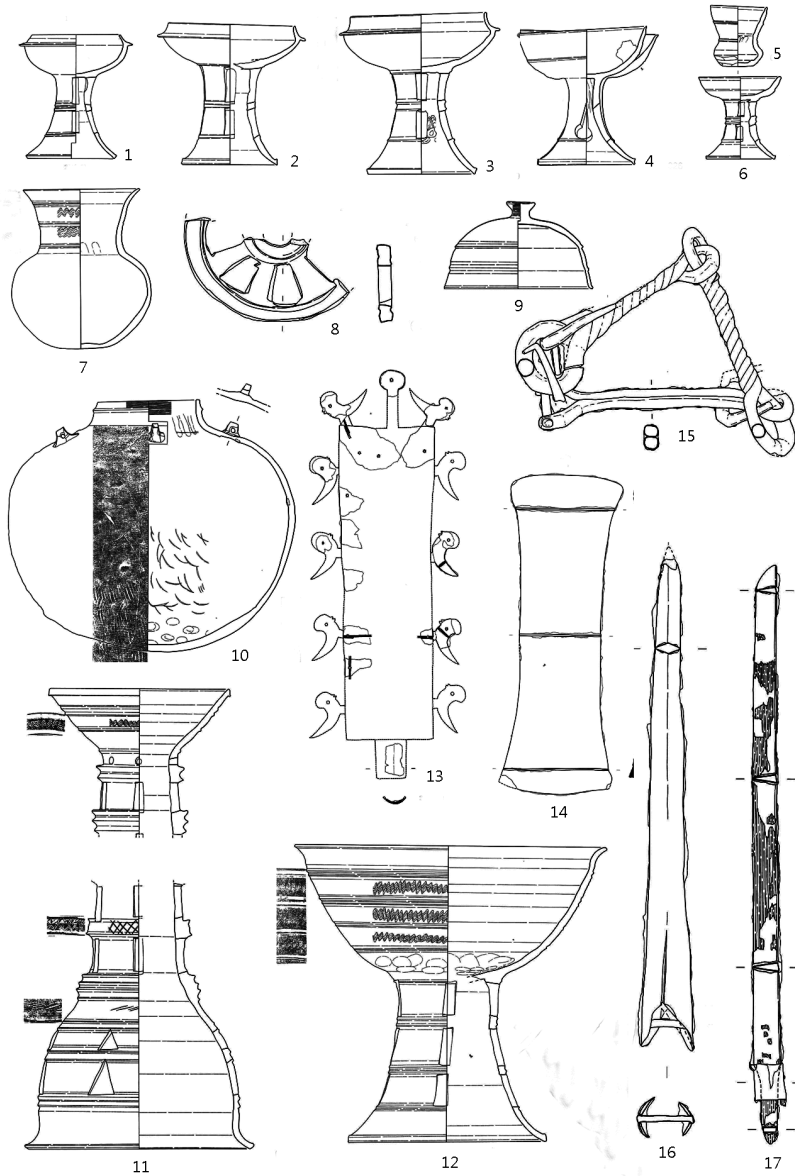
<sup>39)</sup> 아라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한 대표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었다.

우선, 아라가야 목곽묘는 3세기 중엽~후엽에 도항리 구릉에서 조영되기 시작한다. 출현기 목곽묘는 와질제의 노형토기와 경질제의 工자형고배를 비롯한 노형토기, 개, 양이부단경호, 직구호 등의 토기류 위주의 부장이 이루어졌으며, 철기류는 도자, 철부, 철검의 기본적인 농공구류 소량만 부장된 II유형의 목곽묘로 도항리<경>33호와 35호가 대표적이다. 아라가야에서 목곽묘가 출현하여 4세기 초엽기까지는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보다는 주변의 예둔리, 윤외리고분군에 주로 조영되는 특징을 보이며, 목곽묘의 유형은 하위 위계의 III~IV유형이 중심을 이룬다. 중심고분군인 도항리고분군에 수장층의 지배자급 무덤인 I유형의 목곽묘가 본격적으로 조영되는 단계는 4세기 중엽에 와서부터이며, <문>3호와 48호의 조영을 계기로 한다. 이 단계에 도항리에 목곽묘 I유형은 소수이지만, II~IV유형의 목곽묘가 모두 조영되기 시작한다. 주변의 현동과 오곡리에서는 목곽묘 I유형은 조영되지 않으며, III~IV유형이 다양하게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4세기 후엽에는 목곽묘 단계에 있어 큰 획기를 보이는 시기로, 도항리고분군에서 마감층을 비롯한 I유형 목곽묘가 집중 조영된다. 전단계의 I유형 목곽묘와 비교해서 목곽의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는 단계이다. 위세용 철기인 短甲과 冑, 유자이기와 철정 등의 부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토기류에서도 발형기대와 통형기대, 대호류의 수량이 급증하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라가야에서 이 시기는 고분문화의 일대 획기로 볼 수 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엽이 되면, I유형 목곽묘가 조영은 되지만, 앞 시기에 비해 약화되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 시기가 수혈식석곽묘로 묘제의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를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초현기로 정의하고 단계설정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

우지남, 『2.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 『道項里·末山里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135~172쪽; 김정완,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 『伽耶考古學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000, 93~137쪽; 이주현, 『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각국사의 재구성(가야사 학술심포지움)』, 2000, 219~285쪽; 조수현, 『咸安地域의 古墳文化: 木槨墓·豎穴式石槨墓를 中心으로』, 『伽耶文化』16, 伽耶文化研究院, 2003, 173~239쪽; 정주희,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과 意味』, 『한국고고학보』73, 한국고고학회, 2009, 4~51쪽; 박천수, 『III. 가야토기의 편년』, 『가야토기: 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2010, 53~102쪽; 박승규, 『伽耶土器 樣式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도 11.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 단계 유물  
 (토기S=1/10, 철기S=1/4, 8=1/4, 13·14=1/10)  
 1·13·15 : 말산리파괴분, 2·7·10·12·16·17 : 도항리<경상>5호, 4·14 :  
 도항리<경상>9호, 3·5·6·8·9·11 : 도항리<경상>18호

## 1.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 단계 : 초현기

아라가야에서 수혈식석곽묘의 초현은 도항리 구릉의 북쪽에서부터이다. 말산리파괴분<경>과 마갑총 1호 석곽, 도항리<경상>5·9·18호가 해당된다. 구릉의 중심묘역에는 I 유형의 대형목곽묘가 조영되고 있으며, 수혈식석곽묘는 1 椁1槨 구조의 II-1유형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최상위 위계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보다 하위위계에서 먼저 채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초현기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내부공간의 활용과 관곽구조 등은 동시기의 목곽묘 구조와 동일하다. 초현기 석곽묘의 벽석축조수법은 금관가야 출현기 석곽묘와 다르게 과도기적인 양상의 채워넣기식의 무질서한 모습과 바다의 주혈은 보이지 않고, 세일계 점판암을 사용하여 정연하게 가로놓혀쌓기한 것으로 보아, 석재를 가공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자체적인 발전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40)</sup> 연대는 4세기 말~5세기 초엽으로 편년된다.

## 2.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 단계 : 성행기

수혈식석곽묘 II 단계는 아라가야 중심의 도항리고분군에서 I 유형의 목곽묘가 쇠퇴하고, 수장층의 무덤이 수혈식석곽묘로 전환하는 단계로 대형봉토고분 조영의 성행기에 해당된다. 수혈식석곽묘가 최고위계의 수장층에 채용되면서, 내부 면적과 용적율이 목곽묘에 비해서 배이상으로 증가되며,<sup>41)</sup> 위세용 부장품인 갑주와 마갑, 마주 그리고 등자, 행엽, 안고 등의 마구류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순장의 채용 등 아라가야 최고의 전성기에 해당된다. 매장주체부가 수혈식석곽묘

40) 조수현은 목재에서 석재의 변환은 묘제 축조기술의 획기적 발전이지만, 전대 대형 목곽묘에서 바다에 역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내부구조에 석재의 도입은 대형 목곽묘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며,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을 자체발생으로 보았다.(曹秀鉉, 앞의 논문, 2003, 222쪽.) 하지만, 벽석을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네 벽을 짜 맞추어 1m 이상 쌓는 석곽축조공정상의 기술적 측면은 바다에 시상을 사용하는 정도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라가야 초현기 수혈식석곽묘는 완성된 구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석곽축조 기술은 외부에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 대상으로 가야제국 중에서 수혈식석곽묘가 가장 먼저 출현한 금관가야가 유력하며, 아라가야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초현한 4세기 말~5세기 초엽에 금관가야는 목곽묘의 축조가 중단되고 수혈식석곽묘를 주요제로 하는 죽곡리, 안양리, 가달고분군 등이 조영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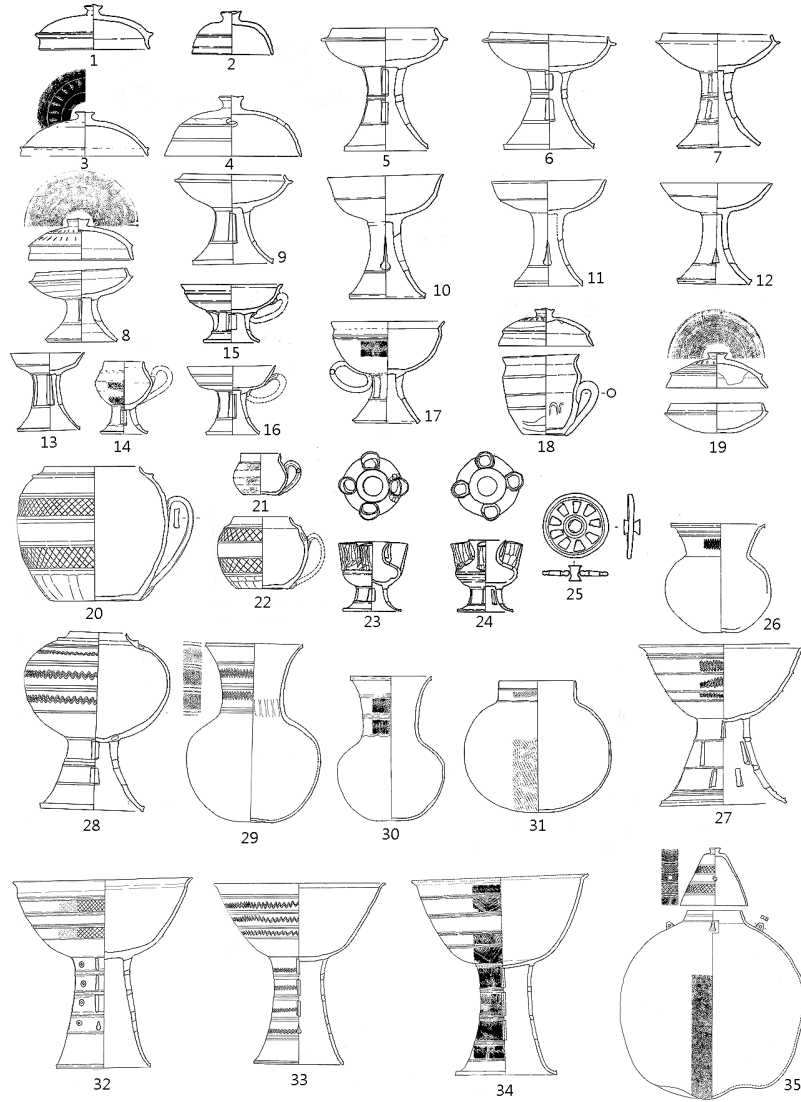
41) I 유형 목곽묘와 I-1유형 수혈식석곽묘의 평균규모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묘형	유형	길이	너비	높이	장단비	면적	평방m	용적율
목곽묘	I 유형	494.9	172.5	88.9	2.9	8.7	2.6	8.7
석곽묘	I-1유형	984.8	179.3	183.7	5.5	17.7	5.3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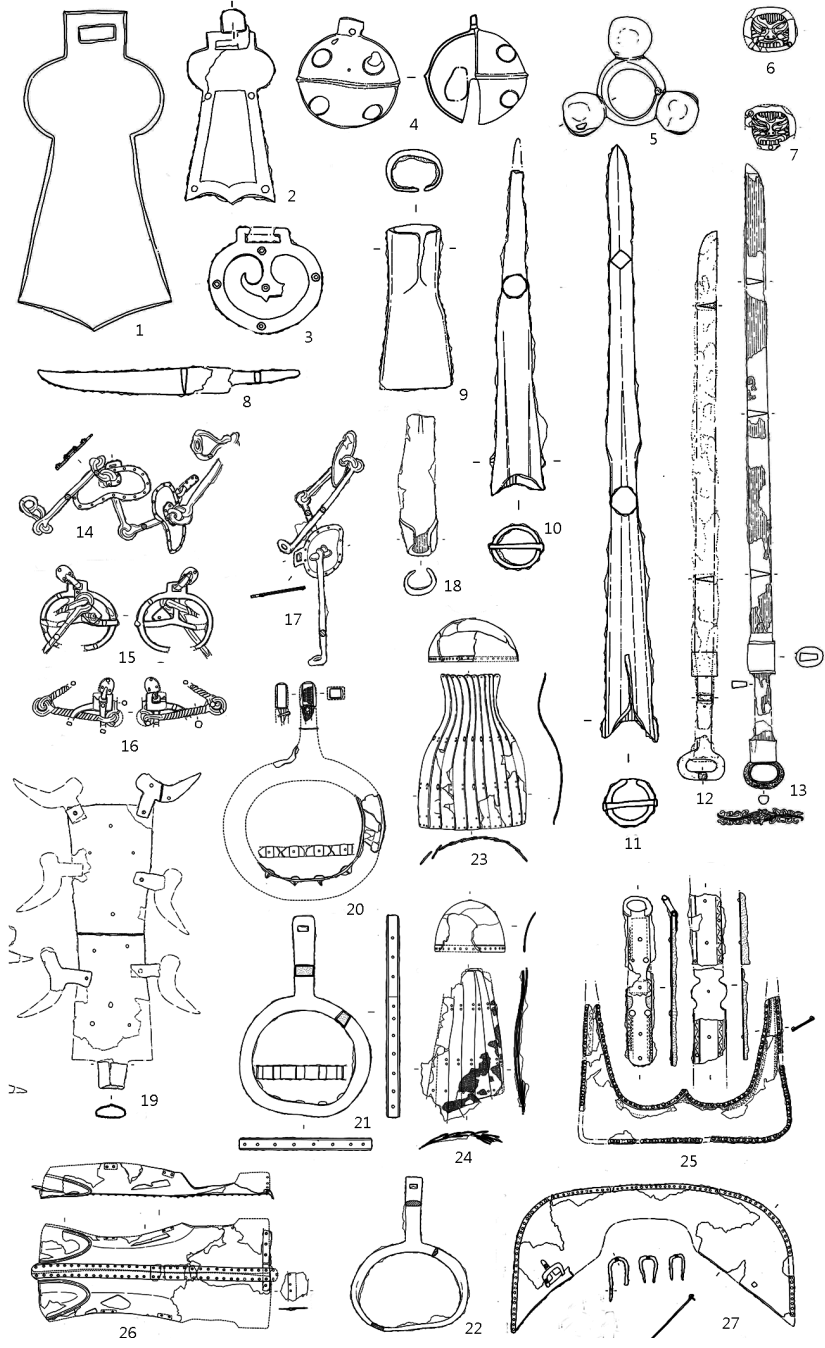
로 전환되면서 대형봉토고분의 축조가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sup>42)</sup> II단계에는 최고위계의 수혈식석곽묘 I-1유형을 비롯하여 I-2·3유형과 II-1유형까지의 비교적 상위위계의 무덤은 도항리고분군에서 집중 조영되는 경향을 보이며, II-2유형 이하는 주변고분군인 현동, 오곡리, 예둔리고분군 등에 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전 단계에 초현한 수혈식석곽묘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이 단계에 모든 유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축조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목곽묘 단계와 비교하면, 수혈식석곽묘 단계에는 4개의 유형 중, 상위위계의 I·II유형은 다시 관곽구조와 순장의 세부특징, 그리고 부장품의 질적 변화 등에 따라 세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상위위계 내에서의 신분분화에도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현>6·8·15·22호가 이 단계에 조영된 최고위계의 수혈식석곽묘이다. <현>15호의 능선 아래인 서쪽으로 가까이 I-2유형의 <문>54호가 배치하고 있으며, <현>6호 주변에도 I-3유형의 <동>6-1호가 배치되는데, 이러한 I-2·3유형의 수혈식석곽묘는 I-1유형의 배장묘로 파악된다.<sup>43)</sup> 주변고분군에서는 II유형이 최고위계의 수혈식석곽묘로 조영되며, I유형은 축조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고분군에서는 이 단계부터 소가야계와 須惠器 등 외래계 유물의 부장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향이 주목된다. 수혈식석곽묘 II단계의 연대는 5세기 중엽~후엽 정도로 편년된다.

42) 대형봉토고분을 축조하기 위해 매장주체부를 수혈식석곽묘로 축조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43) 중국 고대 陵寢制度에서 陪葬은 陵園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帝王과의 친근 관계 즉, 계급과 친인척 등 생전의 공로와 밀접한 관련성에 따라 陵墓와의 거리 및 무덤의 규모가 결정되었다고 한다.(신용민, 『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검토』, 『石堂論叢』 第 40輯, 2008, 19쪽.)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도항리고분군에서 대형봉분이 조성된 I-1유형의 수혈식석곽묘의 주변 근거리에 축조된 중소형봉토고분은 이보다 하위위계의 무덤의 경우, 서열과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 속에서 조영된 배장묘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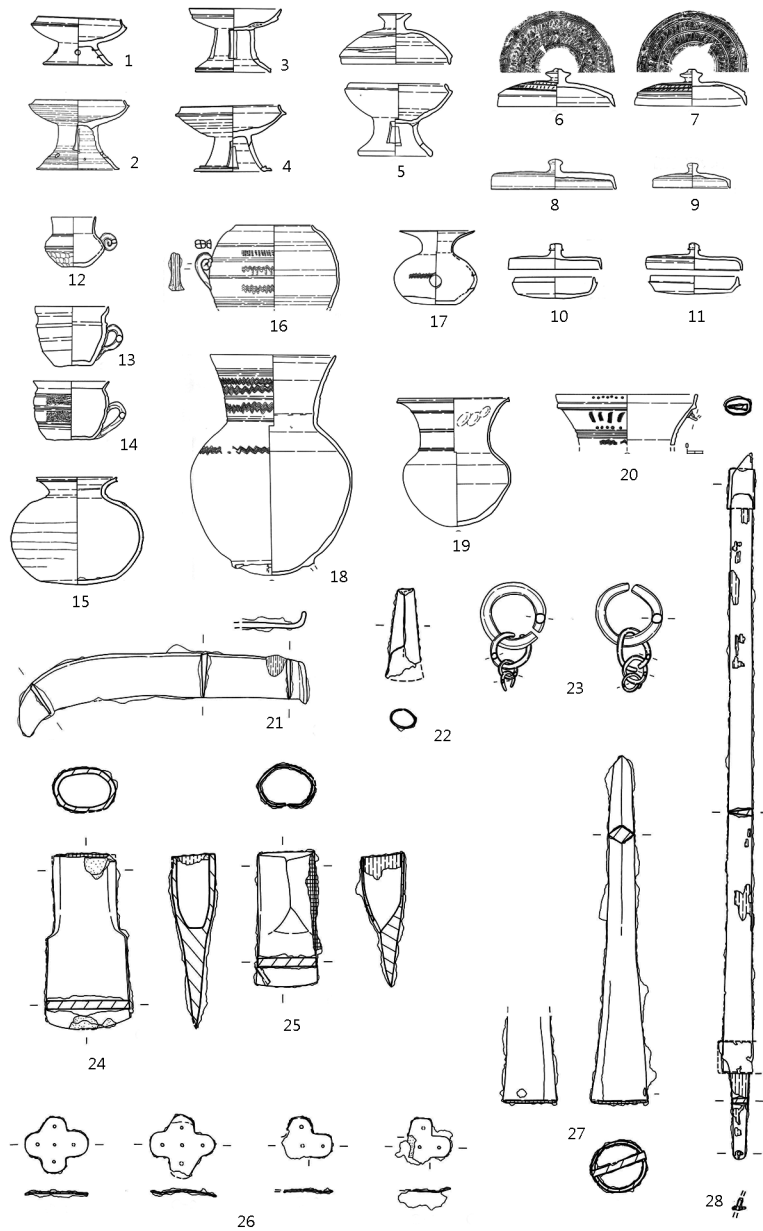


도 12.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단계 유물(토기류)  
 (1~28 : S=1/10, 29~31 : S=1/15, 32~35 : S=1/20)  
 1·5·10·31·32 : 도항리<문>54호, 2·23~25 : 도항리<문>39호,  
 3·7·12·14·17·21·30·34 : 도항리<현>8호,  
 4·6·9·11·13·16·20·22·28·29·33·35 : 도항리<현>6호, 8·18·19 :  
 도항리<경상>10호, 15 : 도항리<문>38호, 26·27 : 현동 64호



도 13.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단계 유물(철기류)  
 (I 유형 출토품 중심, 1~11 : S=1/4, 12~27 : S=1/10)  
 1·5·6·7·13·14·21 : 도항리<문>54호, 2·3·4·12·18·19·23·25 :  
 도항리<현>8호, 8~11·17·22 : 도항리<현>5호, 15·16·20·24·26 : 도항리<현>6호, 27  
 : 도항리<문>38호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본 신분질서 85



도 14.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III단계 유물  
 (토기 : S=1/10, 철기 : S=1/4, 장신구 : S=1/2)

1·4 : 오편리<우리>A-3호, 2·8·9·16·21 : 도항리<경상>8호, 3·6·7·17·20·24~28 :  
 오편리<우리>A-11호, 5·18·19·22 : 오편리<우리>B-6호, 12·15·23 : 도항리<경>31호,  
 10·11·13·14 : 도항리<문>13호

### 3.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Ⅲ단계 : 쇠퇴기

수혈식석곽묘 Ⅲ단계는 6세기 초엽 이후로 편년되는데, 목곽묘는 자취를 감추고, 수혈식석곽묘와 함께 횡혈식석실묘라는 새로운 형태의 묘제가 축조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새롭게 출현한 횡혈식석실묘는 도항리 구릉의 북쪽에서부터 조영되기 시작한다.<sup>44)</sup> Ⅲ단계에 비해, 도항리고분군에는 상위위계인 I·II유형의 수혈식석곽묘를 비롯하여 하위유형의 Ⅲ·IV유형도 숫적 감소현상을 보이는 등 횡혈식석실묘로 변화되는 과도기 단계로 수혈식석곽묘가 쇠퇴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I-1유형으로는 암각화고분이 대표적인데,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전 단계와 동일하지만, 봉토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구릉 전체가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I-2·3유형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서 도항리 일대에 대형봉토고분의 축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세기 후반대에 급성장한 대가야와 함께 아라가야 또한 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장유물의 특징으로는 이 단계에 대가야계의 개배, 파수부완 등이 다수와 소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등의 외래계 토기도 소수 부장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단계에 주변국들과 폭넓은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4) 김정완과 이주헌은 목곽묘 단계부터 수장층의 중심묘역으로 이용된 도항리구릉의 경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순차적으로 축조되면서,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역의 주요 要地에 대형분묘가 모두 설치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6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구릉의 북쪽에서 선대에 설치되었던 목곽묘나 중소형의 목곽묘들을 파괴하고 수혈식석곽묘나 횡혈식석실묘가 축조되는 것으로 보았다.(김정완, 『함안권역 도굴토기의 편년과 분포 변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李柱憲, 앞의 논문, 2000, 267쪽.) 하지만, 횡혈식석실묘가 북쪽에서부터 조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묘지의 부족으로 오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으나, 도항리고분군에서 대형봉토고분의 북쪽→남쪽으로의 시간적인 축조경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동시기에 조영된 <현>6호와 <현>15호의 경우는 다른 지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6호가 북쪽, <현>15호가 남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보다 한 분기 뒤인 <현>8호의 경우, <현>6호와 같은 지능선의 서쪽 아래에 조영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성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혈식석곽묘의 조영은 각각의 지능선상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형봉토고분 주변에 중소형고분이 고분복합체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어 고분군의 조영이 시간적인 순서보다 피장자의 신분에 따른 묘역의 구분과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威安道項里 6號墳』, 2008, 21쪽.)

## V.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본 신분질서

도항리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면서부터 대형봉토고분이 축조되는데, 이것은 아라가야의 내적성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관곽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각각 4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무덤구조의 복잡성, 규모, 축조재료 등은 무덤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신분적인 차등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관곽구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는 당시의 위계(신분질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45)</sup> 특히,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상위위계의 I 유형은 3개의 소유형, II 유형은 2개의 소유형으로 세분되는 양상은 아라가야 상위위계의 신분분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서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보이는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아라가야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아주 단편적이며, 대부분 『日本書紀』의 繼體紀·欽命紀에서 나타난다.<sup>46)</sup> 이 사료를 통하여 아라가야 지배 세력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sup>47)</sup> 『日本

45) 금관가야의 경우,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이 앞선 시기의 목곽묘 사회의 바탕에서 이루어졌으며, 목곽묘 사회의 신분질서가 수혈식석곽묘 사회로 계승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최경규, 앞의 논문, 2012, 36~37쪽.)

46) 『日本書紀』는 기본적으로 일본고대사에 대한 기록으로 가야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撰者에 의한 윤색도 심하여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서로 알려져 왔지만, 근래에 사료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繼體紀(507~531) 및 欽命紀(540~571) 소재 대외관계기사들은 주로 임나일본부 문제와 관계된 기본사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당시의 가야 제국의 사회구조 및 동향과 멸망과정 등을 살펴보는데 비판적 시각에서 활용되고 있다.(金泰植, 앞의 책, 1993, 13~15쪽.) 가야사에 대한 문헌사료의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고고학 자료가 일조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연구자에 의한 『日本書紀』기사의 비판적 해석 또한 가야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7) 아라가야 지배층의 구조 및 분화에 관한 『日本書紀』관계기사는 다음과 같다.

①“…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預昇堂者一二, …(下略)”(『日本書紀』卷17, 繼體紀 23年(529) 3月條)

②“安羅次早岐夷吞奚. 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早岐. 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岐夷他. 斯二岐早岐兒. 子他早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 <闕名字> 往赴百濟俱聽詔書…(下略)”(『日本書紀』卷19, 欽命紀 2年(541) 4月條)

③“…日本吉備臣. 安羅下早岐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早岐. 久嗟早岐. 仍赴百濟. 於是百濟王聖明略以詔書示曰…(中略)…於是吉備臣. 早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 <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 安羅王. 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日本書紀』卷19, 欽命紀 5年(544) 11月條)

書紀』에 나타나는 아라가야 지배세력의 칭호는 王, 國主, 大人, 次早岐, 下早岐 등이다. 欽命紀 13년(552) 기사에서 가야제국 중, 加羅(대가야)와 安羅가 王으로 지칭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는 대가야와 함께 대국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대가야가 南齊에 사신을 보내는 479년 기사<sup>48)</sup>를 바탕으로 王號의 사용은 6세기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있다.<sup>49)</sup> 따라서, 『日本書紀』에 전하는 아라가야 지배층에 관련된 기사는 적어도 5세기대로 소급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사료에서 보이는 아라가야 지배층의 칭호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먼저, 『日本書紀』의 欽命紀 2년(541) 4월조와 5년(544) 11월조에는 임나복건문제에 관해 百濟 聖王 주재의 泗泚會議에 참석한 가야제국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sup>50)</sup> 참석자 명단을 보면, 卒麻·散半奚·斯二岐·子他·久嗟 등의 소국은 君(=君主·國主<sup>51)</sup>)·早岐層을 직접 파견하고 있는 반면에 安羅·加羅·多羅 등은 早岐 아래의 次(下)早岐·上(二)首位를 파견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가야제국의 발전정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 중에서 아라가야는 대가야(加羅)와 대등한 정치적 위상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泗泚會

④“五月戊辰朔乙亥。百濟。加羅。安羅。遣中部德率木州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奏曰。高麗與新羅。通和并勢。謀滅臣國與任那。故謹求請救兵。先攻不意。軍之多少隨天皇勅。詔曰。今百濟王。安羅王。加羅王。與日本府臣等。俱遣使奏狀聞訖。亦宜共任那。并心一力。猶尚若茲。必蒙上天擁護之福。亦賴可畏天皇之靈也。”(『日本書紀』卷 19, 欽命紀 13年(552) 5月條)

48) “加羅國 三韓種也。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治化 加羅王 荷知 款關海外 奉贊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南齊書』卷 58, 列傳39, 東南夷傳 加羅國條)

49) 남재우, 『安羅國의 成長과 對外關係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21~122쪽.

50) 欽命紀 2년과 5년에 기록된 泗泚會議 참석자 명단(남재우, 앞의 논문, 1998, 122쪽, <표13>轉載)

國名	欽命紀 2年(541) 4月條		欽命紀 5年(544) 11月條	
	地位	人名	地位	人名
安羅	次早岐	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下早岐	大不孫·久取柔利
加羅	上首位	古殿奚	上首位	古殿奚
卒麻	早岐	-	君	-
散半奚	早岐 兒	-	君 兒	-
多羅	下早岐	夷他	二首位	訖乾智
斯二岐	早岐 兒	-	君	-
子他	早岐	-	早岐	-
久嗟	-	-	早岐	-

51) 白承忠은 早岐와 君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고, 君은 君主·國主로서 ‘가야의 소국왕’을 지칭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早岐 兒’는 소국의 왕자로 볼 수 있다 하였다. (백승충,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77쪽.)

52) 남재우, 앞의 논문, 1998, 123쪽.

議에 참석한 아라가야의 次(下)牟岐의 칭호에서 ‘次’와 ‘下’가 ‘上’의 상대적 개념인 것으로 보아, 상위에 ‘上牟岐’의 존재가 상정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라가야 지배층은 『王-上牟岐-下(次)牟岐』로 분화된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여기에서 ‘上牟岐=王’이었는데에 대해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田中俊明은 安羅의 경우 ‘王=牟岐’로 대가야(加羅)와 多羅의 중간적 단계로 대가야의 王과 같이 초월적 권력에 도달하지 않은 단계로 보았다.<sup>53)</sup>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유형화한 수혈식석곽묘 I 유형은 순장의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변화 등에 따라 I-1·2·3유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도 7 참조) 이러한 상위위계의 유형구분이 지배층의 분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79년 남제의 견사기사와 『日本書紀』의 기사에서도 ‘加羅王’과 더불어 ‘安羅王’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에서도 ‘王’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王 아래에 上·下牟岐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수혈식석곽묘 I-1유형의 주변에 분포하며 배장묘적 위치를 점하는 I-2·3유형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배층의 분화는 아라가야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sup>54)</sup>

아라가야에서는 대형목곽묘가 4세기 중엽 이후에 성행하고, 이어서 4세기 말~5세기 초엽에 수혈식석곽묘가 초현한 이후 5세기 중엽에 완성된 형태의 수혈식석곽묘가 수장층의 묘제로 채용된다. 대형목곽묘의 관곽구조가 그대로 수혈식석곽묘에 나타나며, 수혈식석곽묘가 먼저 출현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와는 구조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5세기 중엽의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는 예안리, 죽곡리 안양리, 가달, 마천동고분군 등 중소형고분군에서 주로 조영되며, 동시기 아라가야에 비해 규모와 부장유물의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는 금관가야에 시작되어 성행한 수혈식석곽묘의 석재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관곽구조 등의 葬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아라가야의 내적 성장과 발전을 표현하기 위해 5세기 중엽에 성행한 대형봉토고분의 매장주체부의 재료를 석재로 변환하게 되면서 수혈식석곽묘가 발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라가야의 초현기 수혈식석곽묘의 벽석축조수법은 묘광과 내곽인 목곽 사이

53) 田中俊明, 『가야제국의 왕권에 대하여』, 『加耶諸國의 王權』, 신서원, 1996, 66~68쪽.

54) 남재우는 牟岐層의 분화를 安羅에 병합되었던 인근 제지역의 지배층에 대한 安羅國 지배체제의 편입에 따른 계층분화현상의 결과로 추정하고, 이러한 牟岐層은 王 아래서 族의 기반을 지니면서, 외교문제 등의 중대사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남재우, 앞의 논문, 1998, 124쪽.)

를 채워넣기식으로 축조한 조잡한 모습과 내곽을 지지하기 위한 바닥의 주혈 등의 금관가야 출현기 수혈식석곽묘의 과도기적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세일계 점판암을 사용하여 정연하게 가로놓혀쌓기한 것으로 보아, 석재를 가공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자체적인 발전이 아닌 외부에서의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이상으로 아라가야의 수혈식석곽묘 유형화 작업을 통해 전개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아라가야가 성장·발전한 계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葬制에 반영된 신분질서 등의 규율을 나타내는 관곽개념을 적용하여, 아라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유형화 한 결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는 각각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4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도항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대형목곽묘가 조영되는 일대 획기를 거쳐 4세기 말~5세기 초엽에 초현한 수혈식석곽묘는 각 유형의 분포 변화를 기준으로 3단계의 전개양상을 보인다.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중엽에 가장 성행하여 발전되다가 6세기 초엽 이후에 횡혈식묘제가 채용되면서 쇠퇴하는 변화를 보인다.

4세기 말에서 5세기대에 들어와 대형목곽묘의 축조에 이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를 시작으로 대형봉토고분이 성행하는데, 이 때 수혈식석곽묘 내부에 순장이 시행되며, 마갑과 철제 갑주류 등의 상당한 위세품의 부장을 통해 아라가야 성장의 외적표현이 수혈식석곽묘의 축조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55)</sup>

무덤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조의 복잡성, 규모, 축조재료 등은 신분적인 차등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요소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는 당시의 신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상위위계의 I 유형이 3개의 소유형, II 유형이 2개의 소유형으로 세분되는 양상은 수혈식석곽묘 단계에 들어와서 상위위계의 신분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sup>55)</sup> 5세기대의 아라가야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필자는 포상팔국의 전쟁을 주목하고 있다. 포상팔국 전쟁을 통해 경남 해안일대의 소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라가야는 금관가야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전쟁이 종료된 4세 중엽에서 후엽에 내적성장의 결과물로 대형목곽묘가 도항리고분군에 조영되게 되는 것이며, 고대한 봉토고분을 축조하기 위해 매장주체부의 축조재료를 석재로 전환하면서 수혈식석곽묘가 초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였다. 아라가야 지배층의 신분분화양상은 『王-上(上)阜岐-下(次)阜岐』로 이루어졌다는 문헌사학계의 연구성과와 5세기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왕 아래에 上·下(上)阜岐층의 존재를 수혈식석곽묘 I-1유형과 주변에 분포하며 매장묘적 위치를 접하는 I-2·3유형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혈식석곽묘에 나타나는 지배층의 분화양상은 아라가야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5세기대 독자적인 문화적 특징을 보이면서도 수혈식석곽묘라는 공통된 묘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야제국의 독특한 환경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작업은 앞으로 각 가야권역의 고분들 간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 투고일 2012년 7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 참고문헌

### <사료>

『三國史記』

『南齊書』

『日本書紀』

### <국내>

조선총독부고적조사위원회,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박경원, 『咸安地域의 照明用土器』,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4.

이희준,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韓國考古學報』24, 韓國考古學會, 1990.

창원대학교박물관, 『馬山 縣洞遺蹟』, 1990.

\_\_\_\_\_, 『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 I)』, 1992.

김태식, 『加耶聯盟史』, 一朝閣, 1993.

홍보식, 『嶺南地域 橫口式·橫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編年』, 『嶺南考古學』12, 嶺南考古學會, 1993.

경상대학교박물관, 『宜寧 禮屯里古墳群』, 1994.

김태식,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韓國史研究』86, 韓國史研究會, 1994.

김정완,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 變化』,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형곤, 『阿羅伽耶의 形成過程 研究 : 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 『加羅文化』第12輯, 경남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95.

백승충,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이주현, 『咸安地域 古墳文化의 調査와 成果』, 『加羅文化』第 12輯, 경남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95.

창원대학교박물관, 『咸安 梧谷里遺蹟』, 199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岩刻畫古墳』, 1996.

田中俊明, 『가야제국의 왕권에 대하여』, 『加耶諸國의 王權』, 신서원, 1996.

- 이주현, 『未伊山 34號墳의 再檢討』, 『碩晤 尹容鎭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道項里古墳群Ⅰ』, 1997.
- 남재우, 『安羅國의 成長과 對外 關係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신용민,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 : 중국 목곽묘를 중심으로』, 『弁·辰韓의 世界(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회)』, 1998.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道項里古墳群Ⅱ』, 1999.
- \_\_\_\_\_, 『咸安道項里古墳群Ⅲ』, 2000.
- 경남고고학연구소, 『道項里·末山里遺蹟』, 2000.
- 김정완,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 『伽耶考古學論叢』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000.
- 신용민, 『漢代 木槨墓 研究』, 學研文化社, 2000.
- 우지남, 『2.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 『道項里·末山里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 이성주, 『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伽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1, 2000.
- 이주현, 『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각국사의 재구성(가야사 학술심포지움)』, 2000.
- 한국고고학회,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 1, 2000.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道項里古墳群Ⅳ』, 2001.
- \_\_\_\_\_, 『咸安馬甲塚』, 2002.
- 백승욱,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2003.
- 조수현, 『咸安地域의 古墳文化 : 木槨墓·豎穴式石槨墓를 中心으로』, 『伽倻文化』16, 伽倻文化研究院, 2003.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道項里古墳群Ⅴ』, 2004.
- 함안박물관, 『咸安博物館圖錄』, 2004.
- 이주현, 『考古學資料를 통해서 본 古代의 咸安』, 『咸安博物館圖錄(특별논고)』, 咸安博物館, 2004.
- 조수현, 『함안지역의 수혈식석곽묘』, 『咸安博物館圖錄(특별논고)』, 咸安博物館, 2004.
- \_\_\_\_\_, 『加耶墓制의 龕室 再檢討 : 咸安 道項·末山里古墳群을 中心으로』,

- 『嶺南考古學報』35, 嶺南考古學會, 2004.
- \_\_\_\_\_, 『咸安地域 古墳文化의 展開樣相』, 『東亞文化』創刊號, 2005.
- 함안박물관, 『안라국의 상징 불꽃무늬토기 : 火焰形透窓土器』, 2005.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조영현, 『伽耶의 墓制에 나타난 轉換期的 特徵과 樣相 : 출현기 高塚의 築造 構造를 중심으로』,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 경남문화재연구원, 『함안 오곡리 유적 I·II』, 2007.
- 국립김해박물관, 『함안 말이산 34호분』, 2007.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007.
- 조영제, 『서부경남 加耶 豎穴式石槨墓의 수용에 관한 연구』, 『嶺南考古學報』 40, 2007.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咸安道項里6號墳』, 2008.
- \_\_\_\_\_, 『咸安 道項里 古墳群 -함안 도항리 6-1호분』, 2008.
- 신용민, 『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검토』, 『石堂論叢』第 40輯, 2008.
- 정주희,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과 意味』, 『한국고고학보』73, 한국고고학회, 2009.
- 김수환, 『阿羅加耶의 殉葬 : 大型 殉葬墓를 中心으로』, 『嶺南考古學報』55, 嶺南考古學會, 2010.
- 박승규, 『加耶土器 樣式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천수, 『가야토기 -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2010.
- 우리문화재연구원, 『咸安 梧谷里 28番地 遺蹟』, 2010.
- 경상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고분군』, 2011.
- 서영민·여창현, 『함안 말이산고분군 목가구 설치분묘 재검토 : 용어 및 분묘구조를 중심으로』, 『考古廣場』10, 부산고고학연구회, 2012.
- 최경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東亞文化』12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2.

Abstract

## The status order through the typology of Ara Gaya stone-lined pit burial tomb

Choi, Gyong-kyu

The research on the Gaya Empire has been interpreted as confederacies of the center of Geumgwan Gaya in Gimhae and Dae Gaya in Goryung, due to that, Ara Gaya has been lacking research.

However Dohangri tombs which is center of Ara Gaya's tombs started up constructing the large wooden outer coffin since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and then the beginning of the 5th century,

As the principal part of large fief of burial tumulus , stone - lined pit burial tomb was constructed.

That is excellent compared to Geumgwan Gaya and is the same level compared to Dae Gaya.

The growth an development of Ara Gaya appeared in the process of change of burial.

By researching of the stone-lined pit burial which is the peak of Ara Gaya, I could look through the foreign situation and the ruling class of Ara Gaya in those days.

However, the recent studies tend chronological study of the artifact-centric and the research of the burials have tendency to be diachronic study from wooden outer coffin to stone chamber tomb with tunnel entrance.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make typology by applying to the previous wooden outer coffin and stone-lined pit burial as the concept to coffin to discus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tone-lined pit burial in Ara Gaya.

As a result of typology, wooden outer coffin and stone-lined pit burial

could be divided into 4 types, 1, 2 I, I II type of upper hierarchy in stone-lined pit burial tomb sub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scale, the form of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the qualities of director's remains: I type into three small types, II type into two small types stone-lined pit burial tomb I type in Ara Gaya in the 5th century was performing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and was buried with considerable prestige goods such as bard and iron armor. This is to say that the outward expression of Ara Gaya growth appeared simultaneously with the construction of stone-lined pit burial tomb.

The differentiation type of stone-lined pit burial tomb is corresponding to the presense of king(王) of Ara Gaya and the below strata(上-下旱岐層).

At last, the differentiation of the elites through the typology of stone-lined pit burial tomb is realized important archaeological phenomenon which was showing the political grow go Ara Gaya.

Key Words : Ara Gaya, coffins frame, stone-lined pit burial tomb, typology,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manner of social stata, king(王)-Upper stage(上旱岐)-Lower bound based (下旱岐)

